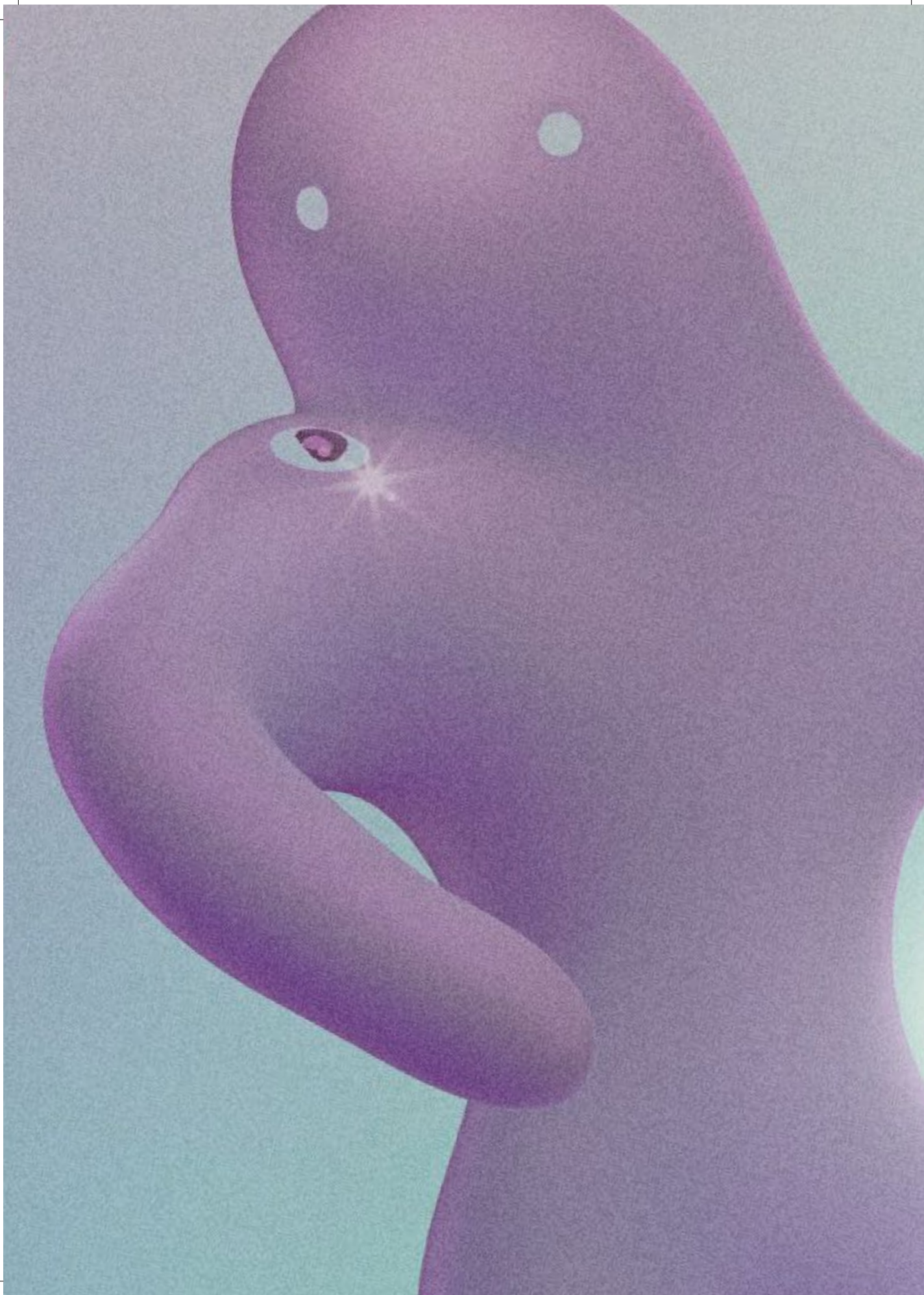






목차

백델데이2023

개요	6
인사말	8
행사 소개	10
슬로건 & 포스터	11
리더필름 & 트레일러	12

백델데이2023 프로그램

백델초이스10 상영	
- 개요	54
- 상영 결과	56
- GV 녹취	57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과의 만남	80
[영화 부문] 백델리안과의 만남	94

관객 설문	140
연계행사	149
(백델초이스 초이스/젠더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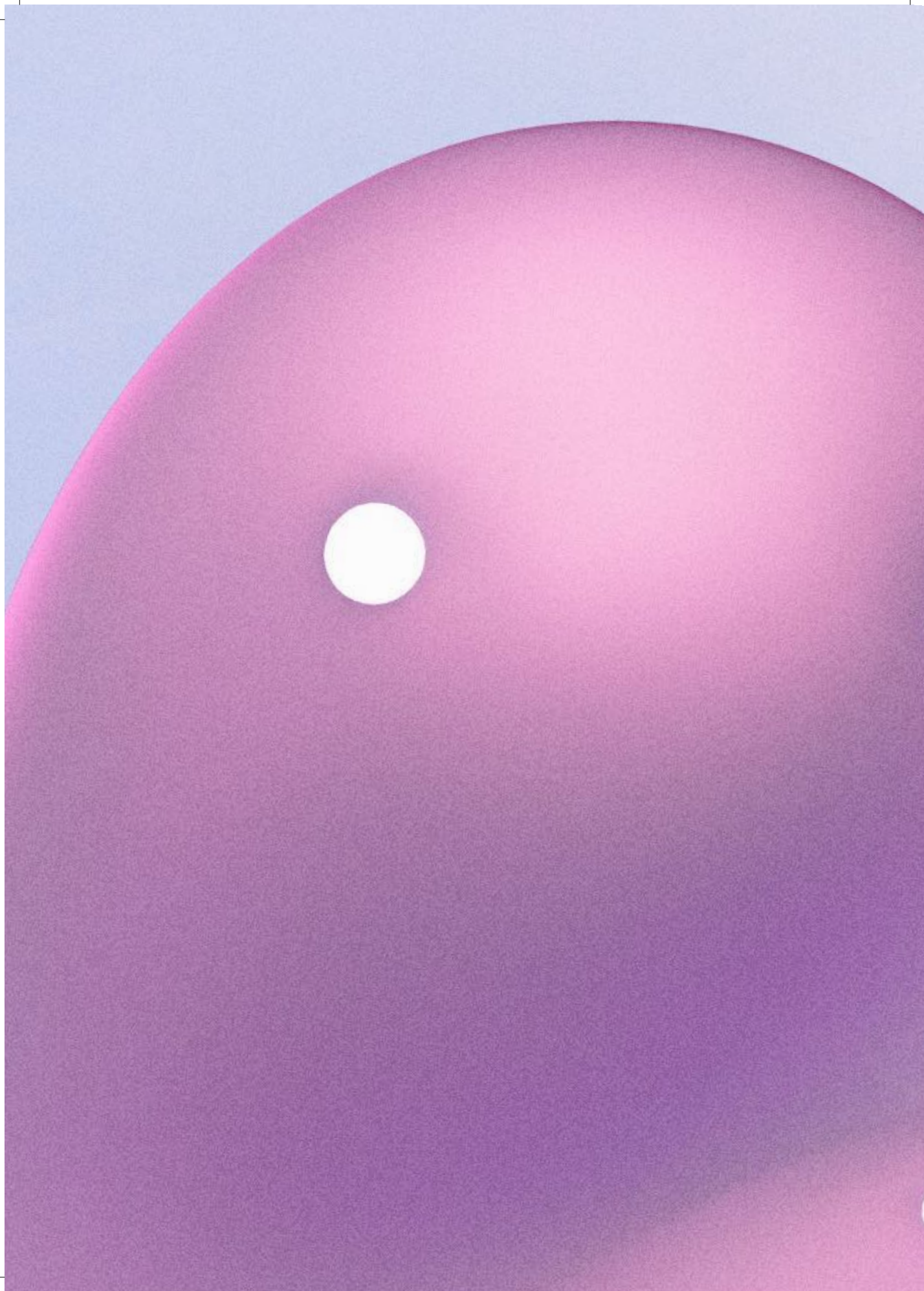
백델초이스 & 백델리안

영화 부문	
- 백델초이스10	18
- 백델리안	30
시리즈 부문	
- 백델초이스10	36
- 백델리안	48

홍보 및 마케팅

매체 홍보	
- 보도자료	110
- 언론 보도	112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119
- 홈페이지	133
- 유튜브(무비건조)	135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136

벡델데이2023



개요

행사 개요

명칭	백델데이2023
기간	2023.9.1(금) ~ 2023.9.3(일)
장소	인디스페이스
주최/주관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참여 인력

조직위원장	민규동
프로그래머	이화정
행사연출	신재호, 정하린
영상연출	성시흠
DGK 사무국	최우리, 양상현, 진보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유한나
운영 코디네이터	송은지
기획, 홍보	송순진(Tas), 박아네스, 백현주
상영관 운영	이지희, 정슬기, 최송아
현장 운영	김다래, 김유진, 송현정
영사관리	박찬진, 최수훈, 손정예 (진미디어)
현장스틸 및 스케치	박범준, 김병철, 현종용 (코쿤나인)
영상촬영	류승진, 김혜이, 김용기 (땅도프로덕션)
홍보영상	권정록, 이규민 (슈퍼비전)
광고 디자인	이관용, 김다슬, 배은별, 박채영 (스푸트닉)

인사말



민규동 조직위원장

예술은 표현을 위한 것이고
과학은 탐구를 위한 것이고
공학은 발명을 위한 것이고
디자인은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백델데이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퀴즈를 풀어보려면 이 기록들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이화정 프로그래머

“내년엔 백델데이와 함께 해야죠.” 개봉, 공개를 앞둔 작품들을 보면서 창작자들과 인사처럼 백델데이 이야기를 건넨다. 2020년 백델데이를 시작한 해를 되돌아보면 백델데이의 개념을 알리는 것만도 큰 과제였다. 생소한 용어, 설명이 필요한 행사였다.

4회가 되면서 체감하는 건 창작 단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백델데이를 더 많이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3년간 백델데이의 이름과 기준으로 점검해 수상자를 호명하고 그들의 작품을 관객과 만나게 다리를 이어 온 결과다. 호명하고 함께 봐주고 박수를 주는 시선, 관객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목격하는 건, 그들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백델테스트 7개의 점검조항이 단순히 만들어진 콘텐츠를 테스트하는 조항으로 끝나지 않고, 창작의 바탕부터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 흥분을 고스란히 느끼며 백델데이의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인사가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올해 우리는 더 많은 확장을 꾀했다. 외형적으로는 영화 부문에 이어 작년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 부문의 선정과 시상이 몸집을 부풀렸다. 영화 부문과 똑같이 30편의 예선, 10편의 초이스, 백델리안 4인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관객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 상영 공간을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가져, 더 많은 노출을 꾀한 것도 분명 확장의 일환이었다.

올해 행사를 기획하고 심사하고 상영을 하는 동안 느낀 성과는, 벡델데이가 선정한 벡델초이스10과 벡델리안들이 이제 벡델데이의 서포터처럼 든든하게 포진해 있다는 점이었다. 작년 선정된 벡델리안이 올해 심사위원이 되거나, 벡델초이스10의 감독이 행사 진행에 참석해 벡델데이의 친구들로 활약한다거나, 2회 영화 부문 선정 감독이 올해 시리즈 부문의 수상자가 되는 식이다. 한번 벡델데이의 친구는 영원한 벡델데이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예이자, 지난 시간 우리가 축제의 꼴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외형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걸 체감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사에 공감해 주고 공간을 함께 채워 준 많은 관객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남으로써, 벡델데이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한해였다. ‘이런 재미난 행사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니 인생의 손해’라는 관객의 품평 한 마디에 적은 인원으로 분투하는 벡델데이의 스태프들은 지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작은 보상을 받는 기분이다. 극장에서 개봉영화로 만났던 영화들이 이제 ‘벡델초이스10’의 이름으로, 성평등의 시각으로 큐레이팅 되어 관객에게 소개되고, 창작자들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토크 행사를 통해 의미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야말로, 벡델데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기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방향이 된다.

벡델테스트 기본 3개 조항을 만든 엘리슨 벡델이 얼마 전 영국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벡델테스트가 ‘일종의 농담’으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했다. 자신이 만든 조항들이 성평등을 가늠하는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는 건 엘리슨 그 역시 처음부터 강조한 바였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멋쩍음에 대한 발언이었다. 많은 창작물이 성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울어진 성비로 만들어지는 창작물을 접하며, 성평등한 한국 영화계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에게 벡델테스트는 꼭 필요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절실한 시작이자 밑바탕이었고, 그렇게 벡델테스트는 확장되어 여기까지 왔다.

성평등에 대한 인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없는 영화와 시리즈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불균형도 엄연히 존재한다. 영화와 시리즈가 더 많이 확장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벡델데이의 가치가 더 많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그 점검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더 정확한 판단과 소비를 해 줄 관객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작지만, 이 작은 파동이 큰 물결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움직이려 한다. 누차 말하지만, 우리는 벡델테스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나가길 희망한다.

행사 소개

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현재를 점검하다

백델데이는 한국 영화 속 성평등 현황을 돌아보고 문화적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첫선을 보였다. 미국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3개의 벡델테스트 기준에 4개를 더한 ‘벡델테스트 7’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 그해의 가장 성평등한 영화와 시리즈 각 10편씩을 ‘벡델초이스10’으로, 성평등에 기여한 영상 창작자들을 감독, 작가, 배우, 제작자 4개 부문으로 나눠 ‘벡델리안’으로 선정함으로써 성평등 인식은 물론 문화 다양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올해의 주안점

올해로 네 번째 행사를 맞이한 백델데이는 팬데믹의 영향 아래 시작돼 관객과의 접점이 적었던 과거의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지난해부터 벡델초이스10의 극장 상영 및 현장 토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홍대 지역에 위치한 인디스페이스를 상영 및 행사장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젊은 관객과 더욱 가까이 밀착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처음 백델데이의 시선을 시리즈 부문으로 확장해 K-콘텐츠 전반을 아우른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리즈 부문의 벡델초이스를 지난해 대비 두 배 많은 10편을 선정함으로써 영화와 똑같은 무게를 주었다. 이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더 많은 K-콘텐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슬로건 &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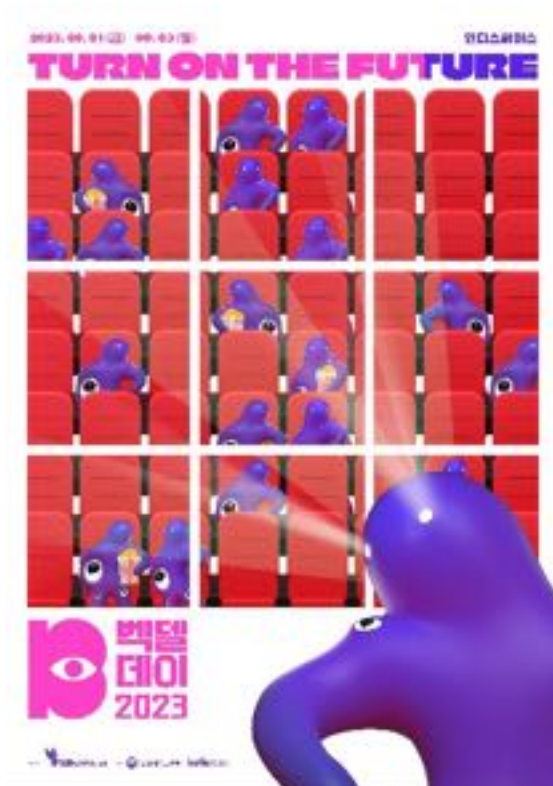
‘TURN ON THE FUTURE!’

백델데이2023은 백델데이의 관점이 영화·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TURN ON THE FUTURE(턴 온 더 퓨처)’를 슬로건으로 그대로 이어간다.

한편 포스터는 2종으로 구성하였다. 백델데이2023 메인 포스터는 극장과 관객을 비추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보라색 백델 캐릭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자의 창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여러 명의 백델 캐릭터 사이로 영사기에서 비추는 듯한 빛줄기가 쏟아진다. 백델 캐릭터의 눈빛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뻗어 나가는 이 빛은, 백델데이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결합한 한국 영화·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여는 데 제 몫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부드러운 파스텔톤이 조화로운 서브 포스터에서는 기울어진 땅 위에 제각기 희미한 빛을 내며 서 있는 작은 캐릭터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지 않은 채 빛을 뿜어내는 백델 캐릭터를 통해 백델데이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현실을 상징하는 투명한 유리벽에 부딪쳐 비교적 작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작은 백델 캐릭터들이 보다 당당하고 힘 있게 서서 또렷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투명한 벽들이 사라질 수 있길 바라는 백델데이의 취지를 담은 것이다.

포스터 디자인 | 스푸트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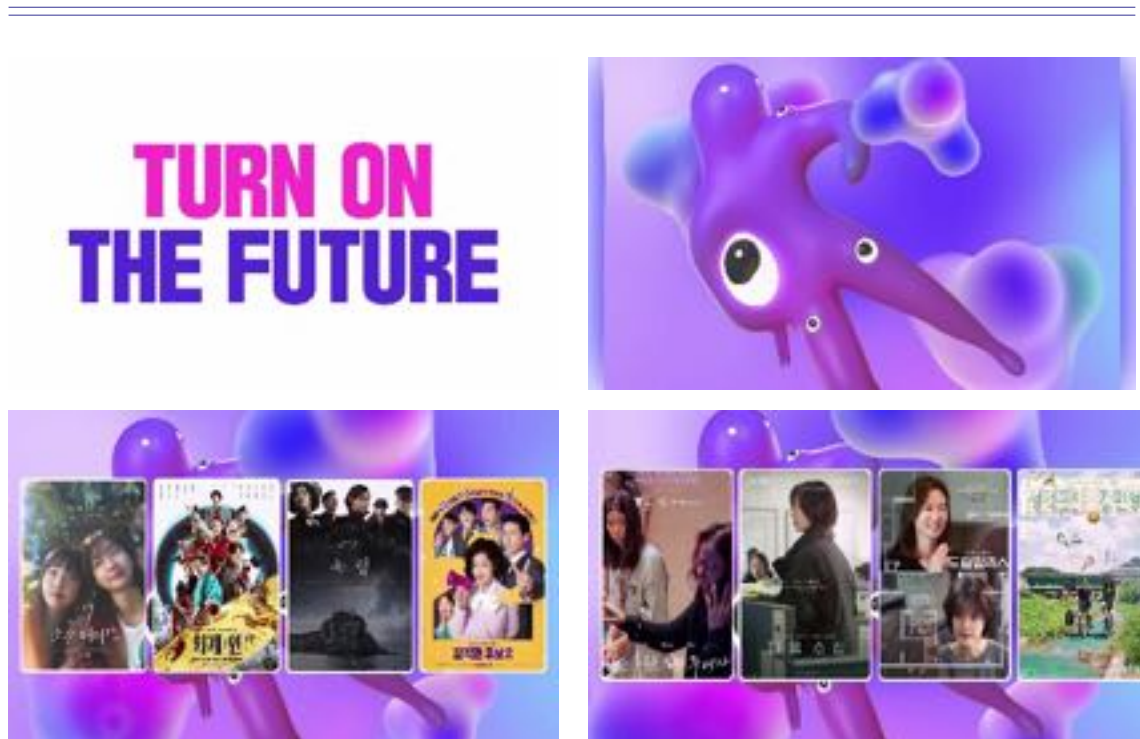
리더필름



백델데이
BECHDEL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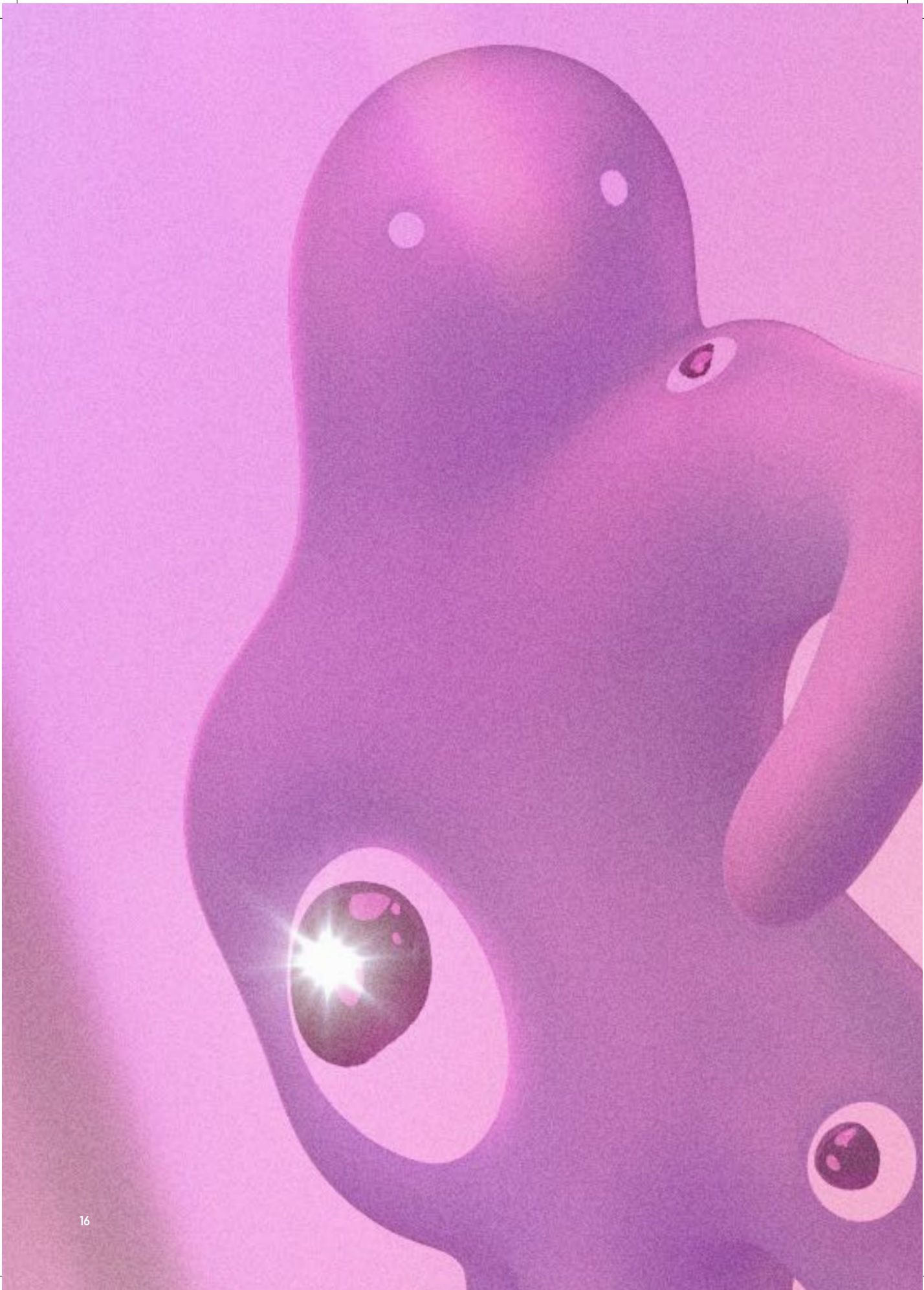
백델데이는 전년도에 이어 백델데이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리더필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리더필름에는 신비로운 숲 안에서 문을 여는 백델이의 모습이 보인다. 백델의 눈 형상을 한 문을 열어젖히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백델이의 모습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백델데이의 의지가 담겼다. 영상은 권정록, 김현수, 이규민이 작업했다.

트레일러



백델데이는 올해 타이포그래피 형식으로 트레일러를 제작해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영부터 토크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안내했다. 영상은 슈퍼비전의 권정록, 이규민이 작업했다.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영상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성평등’을 더한 백델데이는 2020년 ‘영상매체의 꽃’이라 불리는 영화 내의 성평등 재현을 돌아보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어느덧 네 번째 행사를 맞이한 백델데이2023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극장 개봉(영진위 통전망 기준 전국 10개 이상 스크린에서 개봉한 실질 개봉작)했거나 대중에 공개된 OTT 오리지널 영화 총 120편을 검토해 백델초이스10을 선정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평등 관점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인 창작자에게 수여하는 백델리안을 감독, 작가, 배우, 제작자 부문으로 나눠 정했다. 백델리안 선정은 올해의 심사 대상작뿐 아니라 창작자가 그간 작업을 통해 보여온 성과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백델초이스10과 백델리안 심사에는 백델데이2022에서 영화 <앵커>로 백델리안(제작자)에 선정된 인사이트필름 신혜연 대표와 씨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 평론가,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 2022년 백델초이스10 선정작 <갈매기>의 김미조 감독이 참여했다.

백델데이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2020년 처음 백델데이를 시작하면서 성평등한 한국영화를 조명하고 알리고자 한 노력이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체감한다. 창작자들 사이에서 ‘백델데이’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창작 단계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한 번 더 짚는 과정이 수반되고, 그 노력이 결국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는 예들을 접하면서 차츰 백델데이의 좋은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백델데이의 평가지수가 콘텐츠 내의 정량적인 성비 균형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스크린 뒤의 성평등을 돌아보거나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좋은 기준점이 되어준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1년간 관객들과 만난 작품을 대상으로 올해도 백델데이의 가치에 부합하는 영화들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개봉 당시 관객 호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백델데이의 가치에서 볼 때 성평등한 콘텐츠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가 보인 작품이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상찬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작년의 경우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한국영화의 제작과 개봉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한 영화들은 꾸준히 만들어졌고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여름 텐트폴 영화들의 남성 편향적 불균형이 도드라지는 가운데에도 전체 개봉작의 면면을 점검해 보면 장르와 서사의 다양한 시도 가운데 창작자들은 성비 균형을 갖춘 서사를 구성하고, 전형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깨는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창조해 관객에게 균형 잡힌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작품을 고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백델데이의 기준에 따라, 올해의 백델초이스10과 백델리안을 선정했다. 올해의 작품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평등한 영화라는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그 가치가 영화의 신선함을 보장하는 요소로 읽히고, 관객에게 사랑받은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백델데이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평등에 관한 창작자들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작년과 올해도 또 한 번 한국영화 콘텐츠의 질적인 면을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백델데이도 올해의 성과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을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들 개별 작품의 노력으로 한국영화가 성평등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화정(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감독 김세인 | 배우 임지호, 양말복 | 작가 김세인 | 제작 조성원, 조근식 | 140min | 15세



이정(임지호)과 수경(양말복), 지나치게 공유하며 살아가는 딸과 엄마의 불안한 동거는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폭발하고야 만다. 여성 캐릭터의 에너지를 이 정도로 응축시켜 무한대로 펼쳐 보인 영화가 있었던가. 하지만 이 영화의 힘은 강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세함에서 온다. 백델 데이 역사상 초유의 ‘킬링&힐링’ 심리 드라마.

주성철(씨네플레이 편집장, 영화평론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투던 중, 마트 주차장에서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수경’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이정’은 고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정’은 ‘수경’으로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할 마음을 돌려받고자 한다.

각기 다른 사이즈의 마음 대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세계

길복순

감독 변성현 | 배우 전도연, 설경구, 김시아 | 작가 변성현 | 제작 이진희 | 137min | 18세



*사진 출처: 넷플릭스

여성이자 어머니자 킬러인 길복순의 이야기를 액션 장르로 풀어낸 수작. 스타일리시한 액션, 착하지만은 않은 여자들이 한껏 등장하는 매력적인 캐릭터의 향연은 이 영화에서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요소다. 배우 전도연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딸을 키우는 게 더 어려운 '워킹맘' 길복순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완성해낸다.

김미조(영화감독)

‘청부살인’이 본업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벤트 회사인 MK ENT. 소속 킬러 ‘길복순’(전도연)은 ‘작품’은 반드시 완수해 내는 성공률 100%의 킬러이자, 10대 딸을 둔 엄마다. 업계에서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에이스지만, 딸 ‘재영’(김시아)과의 관계는 서툴기만 한 싱글맘인 그는 자신과 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퇴사까지 결심한다. MK ENT. 대표 ‘차민규’(설경구)의 재계약 제안의 답을 미룬 채, 마지막 작품에 들어간 ‘복순’은 임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허가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MK ENT.는 물론, 모든 킬러들의 타겟이 되고야 마는데...

죽거나 죽이거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다음 소희

감독 정주리 | 배우 김시은, 배두나 | 작가 정주리 | 제작 김동하 | 138min | 15세



영화는 묵직한 한 방으로 말한다. 다음 소희는 없어야만 한다고. 바짝 붙어선 채 이들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연출은 작가이자 감독 정주리가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러인지를 증명한다. 반짝반짝 빛나던 소희와 그런 소희의 뒤를 따라가는 형사 유진을 완성하는 김시은과 배두나의 눈빛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공명한다.

김미조(영화감독)

“나 이제 사무직 여직원이다?”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막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보고만 있었냐고” 오랜만에 복직한 형사 유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취를 쫓는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언젠가 마주쳤던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그 애를 만난 적이 있다.

드림팰리스

감독 가성문 | 배우 김선영, 이윤지 | 작가 가성문 | 제작 광용수 | 112min | 12세



산업재해 유가족인 혜정(김선영)은 회사와 합의하고 투쟁 대오를 나온다. 사회가 규정하는 행복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기 위해 낙인을 무릅쓰고 자신을 새롭게 무장한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수인(이윤지)과 아이들을 두고자 초대한 아파트 ‘드림팰리스’는 공장 밖 또 하나의 싸움터다. 작은 이익이 세계의 전부가 되어 버린 일그러진 공동체. 산업재해, 부실공사 등 굵직한 사회 담론을 조망하는 가운데 두 여성 배우의 역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혜정’과 ‘수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운 사이이다.
‘혜정’은 합의금을 받고 싸움을 멈췄지만, ‘수인’은 다른 유가족들과 아직도 농성 중이다.
남편 목숨 값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드림팰리스’에서 새 삶을 시작한 ‘혜정’은 ‘수인’에게 새 집을 꿈꾸라고 부추긴다.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던 ‘수인’도 어느새 ‘드림팰리스’를 꿈꾸게 되는데...

맞잖아요? 행복은 아파트 분양순.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성적표의 김민영

감독 이재은, 임지선 | 배우 김주아, 윤아정 | 작가 이재은, 임지선 | 제작 조윤빈 | 97min | 전체



수능을 앞두고 절친 모임인 삼행시 클럽이 잠시 해체를 선언한다. 민영(윤아정)과 수산나는 대학에 진학하고 정희(김주아)는 고향에 남아 느릿한 생활을 지속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만큼, 그녀들의 엉뚱하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묘하게 어긋난다. 너와 나의 스무 살에 성적을 매기는 영화의 과정은 여러 심상을 일게 한다. 각자의 스무 살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빛나는 청춘영화.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기숙사 생활을 하며 삼행시 클럽을 만들어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지낸 김민영, 유정희, 최수산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우정도 졸업과 동시에 각자의 다른 생활 속에서 관계가 소원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민영이 갑자기 정희를 집으로 초대하고,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민영을 찾아가지만,
자신의 기말 성적을 정당화느라 바쁜 민영에게 정희는 안중에도 없다.
정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을 기다린다.
과연 정희와 민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울메이트

감독 민용근 | 배우 김다미, 전소니, 변우석 | 작가 강현주, 민용근 | 제작 변승민, 권오현 | 124min | 12세



대부분의 청춘영화가 첫사랑에 방점을 두는 반면 <소울메이트>는 두 여성이 깊은 우정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거울을 보듯 서로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하는 미소(김다미)와 하은(전소니)의 관계를 통해, 영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장통을 아프게 담아낸다. 이렇게 두 여성이 끝까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꿈이 되는 영화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흔치 않을 것 같다.

신혜연(인사이트필름 대표)

1998년, 처음 만났다.
2004년, 첫사랑이 생겼다.
2010년, 각자 어른이 되어간다.
2014년, 흔적을 따라간다. 지금, 그리움을 그린다.

2023년 3월 15일,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찾아옵니다.

외계+인 1부

감독 최동훈 | 배우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 작가 최동훈, 이기철 | 제작 안수현, 최동훈 | 143min | 12세



최동훈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외계+인 1부>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성별을 불문하고 자기 주도적이며 욕망에 솔직하다. 특히 이안(김태리)의 총기 액션 신, 삼각산 신선 흑설(염정아)의 도술 신 등에서 볼 수 있듯, 여성 캐릭터 역시 관습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벗어나 거침없고 독창적이다. 최동훈 감독의 전작들과 <외계+인 1부> 모두 백델초이스에 선정되기에 충분하다.

신혜연(인사이트필름 대표)

2022년 현재, ‘가드’(김우빈)와 ‘썬더’는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며 지구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서울 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고 형사 ‘문도석’(소지섭)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한편, 630년 전 고려에선 열치기 도사 ‘무득’(류준열)과 천둥 쏘는 처자 ‘이안’(김태리)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신검의 비밀을 찾는 두 신선 ‘흑설’(염정아)과 ‘청운’(조우진), 가면 속의 ‘자장’(김의성)도 신검 쟁탈전에 나선다.
그리고 우주선이 깊은 계곡에서 빛을 내며 떠오르는데...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1391년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 시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령

감독 이해영 | 배우 설경구, 이하늬, 박소담, 박해수, 서현우 | 작가 이해영 | 제작 박은경 | 133min | 15세



“독립하면 담배나 끊을까?” “왜? 더 맛있어질 텐데.” 투철한 사명감과 역사 의식에 그저 조금 더 개인적 자유를 꿈꾸고, 또한 누군가를 평범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끈질긴 독립운동이 되고, 그래서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지금껏 그때 그 시절을 다룬 한국영화에서 쉬이 보지 못한, 결코 ‘유령’으로 남지 않을 두 여성 캐릭터와 마주하게 된다.

주성철(씨네플레이 편집장, 영화평론가)

“유령에게 고함. 작전을 시작한다”

1933년, 일제강점기 경성. 항일조직 ‘흑색단’의 스파이인 ‘유령’이 비밀리에 활약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경호대장 카이토는 ‘흑색단’의 총독 암살 시도를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 내의 ‘유령’을 잡으려는 덫을 친다.

영문도 모른 채, ‘유령’으로 의심받고 벼랑 끝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준지, 암호문 기록 담당 차경, 정무총감 비서 유리코, 암호 해독 담당 천계장, 통신과 직원 백호.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뿐.

기필코 살아나가 동지들을 구하고 총독 암살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령’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 사이, 의심과 경계는 점점 짙어지는데...

과연 ‘유령’은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정이

감독 연상호 | 배우 강수연, 김현주, 류경수 | 작가 연상호 | 제작 변승민 | 98min | 12세



*사진 출처: 넷플릭스

한국형 SF의 도전과 가능성을 입증한 <정이>는 22세기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세계가 수준 높은 CG로 구현되는 가운데, 영화의 중심 흐름에 전투 AI 윤정이(김현주)와 그의 딸 윤서현(강수연)의 모녀 서사가 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대표했던 두 여성 배우는 대단히 한국적인 모녀 관계에서 출발해 SF라는 장르를 자신들의 색깔로 장악한다. 한국영화에서 누구도 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멋지게 개척하는 여성들의 영화.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는 폐허가 되고 인류는 우주에 새로운 터전 '셸터'를 만들어 이주한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내전에서 '윤정이'(김현주)는 수많은 작전의 승리를 이끌며 전설의 용병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작전 실패로 식물인간이 되고, 군수 A.I. 개발 회사 크로노이드는 그녀의 뇌를 복제해 최고의 A.I. 전투 용병 개발을 시작한다.

35년 후, '정이'의 딸 '윤서현'(강수연)은 '정이 프로젝트'의 연구팀장이 되어 전투 A.I. 개발에 힘쓴다.

끝없는 복제와 계속되는 시뮬레이션에도 연구에 진전이 없자, 크로노이드는 '정 이'를 두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이를 알게 된 '서현'은 '정 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전투 A.I. 정 이, 연구소를 탈출하라!

정직한 후보2

감독 장유정 | 배우 라미란, 김무열, 윤경호 | 작가 박하나 | 제작 김홍백, 민진수 | 107min | 12세



속편 제작부터 감격적이다. 아니, 당연한 결과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 의원(라미란)이 이번에는 도지사가 되어 다시 한 번 ‘진실의 주둥이’를 장착한다. 라미란 배우는 총무로에서 전혀 의심할 여지없는 원톱 배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내고, 장유정 감독 또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시리즈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주성철(씨네플레이 편집장, 영화평론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쫓딱 망한 백수가 된 ‘주상숙’은 우연히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고향에서 화려한 복귀의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다시 뺑뺑이로 돌아간 그 순간, ‘주상숙’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진실의 주둥이!’ 이번엔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까지 주둥이가 쌍으로 털리게 되는데... 재미도 2배! 웃음도 2배! 주둥이 대폭발 코미디가 돌아왔다!

감독 정주리



2023년을 돌아보았을 때 <다음 소희>는 어디서든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4년 <도희야>로 데뷔한 정주리 감독은 전작에서 아동 학대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다음 소희> 역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카메라를 포커싱하여, 모두를 그 세계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다. <다음 소희>는 영화 밖 사실을 직시하며,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다해 공감하고 연대한다. 이러한 특별한 정서와 무드는 사건을 고발하는 뉴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희’의 삶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영화’로 남게 되었다. 정주리 감독은 응시의 힘을 가지고 있다. 청년 세대의 노동을 사려 깊게 관찰하고 그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사회의 이면에 집중한다. 여성, 약자, 소수자를 보듬는 그녀의 시선에 감사하다.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Filmography

도희야(2014), 다음 소희(2023)

작가 김세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단순히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이정과 수경, 두 여자의 처절한 투쟁의 연대기에 가깝다. 영화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로 보는 이를 영화가 공한 세계 안으로 끊임없이 인도한다.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그들에게 도달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속절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흡인력 있는 서사는 이 영화의 장르가 드라마가 아닌 스릴러에 가깝게 보이게 만든다.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탄탄하게 쌓아 올린 생동하는 캐릭터는 불가할 것만 같았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바로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던 것 같던 엄마를, 비정해 보이기만 했던 그 여자를, 자신의 욕망에만 충추는 듯해 보였던 수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김미조(영화감독)

Filmography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2022)

제작자 이진희



“엄마, 수고했어”라는 후반부 대사를 “도연씨, 수고했어요”라고 바꾸면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전도연에 대한 오마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길복순>은, 장르영화 안에서 현실 모녀 관계의 단맛과 쓴맛을 그야말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영화다. 어느 순간 ‘한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훌쩍 넘어서 버린 전도연의 오라(aura)는 이처럼 절묘하고도 새롭게 정립되는데, 그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어쩌면 변성현 감독과 이진희 제작자의 오랜 호흡 아래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진희 제작자는 일단 변성현 감독과 함께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그의 두 번째 영화 <나의 PS 파트너>를 시작으로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프로듀서를 거쳐 2018년 설립한 씨앗필름의 제작자로서 <킹메이커>와 <길복순>까지 사실상 그의 모든 작품을 함께했다. 넷플릭스와는 <길복순>에 이어 박현진 감독의 <모럴센스>, 그리고 시리즈 <사냥개들>까지 공동제작하며 지난 몇 년간 총무로에서 가장 바쁘게 살아온 제작자였다. 상투적인 얘기일지라도, 진정 그다음이 궁금한 제작자다.

주성철(씨네플레이 편집장)

Filmography

나의 PS 파트너(2012, 프로듀서),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6, 프로듀서), 킹메이커(2022), 길복순(2023), 사냥개들(2023)

배우 이하늬



*사진 제공: 코스모폴리탄

〈극한직업〉의 형사, 〈블랙머니〉의 국제 변호사, 〈킬링 로맨스〉의 톱스타, 〈유령〉의 통신과 암호 전문 기록담당. 최근 연기한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우 이하늬는 전문적이고 개성이 강한 캐릭터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그만의 인간적 온기를 부여한다. 〈유령〉에서 연기한 박차경은 겉으로는 차갑고 이성적인 통신 기록관이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랑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단련된 전사의 액션 신을 대역 없이 수행한 것도 놀라운 점이지만, 박차경 역에 대해 “온몸에서 나오는 기운, 기세가 보여져야 했다”는 한 인터뷰 속 말처럼, 생과 사를 오가는 인물의 단단하고 강인한 기세는 온전히 배우의 노력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배우 이하늬가 캐릭터에 덧입히는 따뜻한 카리스마는 그 어떤 의심 없이 기꺼이 인물의 삶에 다가가려고 하는 개인의 태도에 닿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면모는 배우 이하늬가 가지고 있는 비교 불가능한 매력이다.

신혜연(인사이트필름 대표)

Filmography

타짜-신의 손(2014), 로봇,소리(2016), 부라더(2017), 극한직업(2019), 블랙머니(2019), 외계+인 1부(2022), 유령(2023), 킬링 로맨스(2023)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영상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성평등’으로 삼고 있는 백델데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영화와 영화인에 주목하던 시선의 영역을 시리즈 분야로도 확대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IPTV, OTT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접하는 창작 콘텐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작품이 이룬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백델의 시각으로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특히 넷플릭스 사용자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관람한 적 있다고 할 만큼 한국 영화와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소통되는 현재, 우리 영상이 가진 인종 및 젠더 감수성 등을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델데이2023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개된 시리즈 중 성평등 및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띈 작품 10편을 백델초이스10으로 선정하고, 해당 작품에 참여한 창작자 중 성평등에 기여한 인물을 연출(감독), 작가, 배우, 제작자 부문으로 나눠 함께 시상한다.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채널, OTT 오리지널 등에서 소개된 84편이 백델초이스10 선정 심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에는 김민정 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진명현 무브먼트 대표, 나원정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극장가가 더디 회복하는 사이 화제를 모은 건 시리즈였다. K-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제작 탄력을 더한 시리즈들은 각종 OTT 창작물이 더해지면서 작년 한 해 더 많은 장르, 스토리, 소재, 캐릭터를 구현하며 시청자와 만났다. 백델데이도 지난해부터 시리즈 부문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작품 안에서의 성평등 재현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피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3년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은 선정작의 면면으로 볼 때 모두 다양한 장르와 서사, 그에 맞는 캐릭터 구현이라는 백델데이의 관점에 충족된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시리즈물을 성평등 관점으로 돌아볼 때 “더없이 기록할 만한 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은 성평등 지점에서 도전한 지점과 성취의 지점이 각각 뚜렷했다. 먼저 두 여성 친구가 외계인을 찾아나서는 SF 판타지 서사 <글리치>나 선거전을 앞둔 여성 정치인을 소재로 한 <퀸메이커>는 성 역할 전복을 통한 쾌감을 안겼다. 기존에는 남성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한 장르나 소재라고 ‘당연히’ 여겼던 영역에서 외연을 확장해 여성 서사가 개발되고, 여성 캐릭터들이 활약하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으로써 남녀 역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피해자인 여성들의 연대를 그린 <더 글로리>와 장애인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여성을 넘어, 소수자를 주목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대중과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준 작품이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 서사를 피해자를 돌아보는 드라마적인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로 풀어낸 <마당이 있는 집>의 독특한 시도 역시 돋보였다.

익숙한 장르의 법칙을 가져오되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슈룹〉은 궁중 암투라는 틀을 차용하면서도 그 전형성을 깨는 시도로 호응을 얻었으며,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타임워프의 형식 안에서 여성 캐릭터가 자아를 발견하는 유의미한 장면을 이끌어낸다. 〈작은 아씨들〉은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가족, 계급 등 관계의 역학을 풀어내는 동안 다양한 여성 캐릭터의 욕망을 세심하게 조명한다. 기존의 드라마 형식이 공고한 경우 여성 캐릭터와 서사가 스테레오 타입에 갇히기 쉬운데, 이들은 그 안에서 성차별에 갇히지 않고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작품으로 기록될 만하다.

백델데이는 장르성이 강한 작품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지금의 OTT 환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작품들이 보여준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취도 주목했다. 성역할이 고정되기 쉬운 멜로 장르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스테레오 타입화해 그리지 않은 〈사랑의 이해〉나 도심을 벗어나 자신의 호흡을 찾아나가는 여성의 로드무비 〈박하경 여행기〉는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며 확고한 팬층을 만난 작품들이다.

시리즈 제작은 영화 부문과 제작,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창작자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서로 소재, 주제, 장르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영화 콘텐츠와 달리 시리즈 부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여성 창작자의 입지가 마련되어 있고, 상업영화에서 부족한 여성 서사가 꾸준히 개발되는” 성평등이 비교적 잘 구현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리즈의 현재를 점검하는 것이 영화 분야에서 보다 진일보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영역에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도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취와 별개로 개선해야 할 지점,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됐다. 심사위원들은 “이 시기에 여성 캐릭터와 서사가 성평등적인 면에서 보다 진일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바꾸는 평면적인 시도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에 대한 우려, “호흡이 긴 시리즈의 경우 전반부에 캐릭터 구축을 잘해 놓고도 결말 부문으로 가면서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에 여성을 국한시키는” 등의 오류가 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내년에 만날 보다 성평등한 작품을 기다리며, 백델초이스10의 호명과 의미 부여가 성평등한 시리즈의 개발에 더 많은 자극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화정(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글리치

감독 노덕 | 배우 전여빈, 나나 | 작가 진한새 | 제작 윤신애



*사진 출처: 넷플릭스

이런 여성 버디물은 처음이다. 외계인보다 더 종잡을 수 없고 사이버 종교보다 더 질긴 ‘비주류’ 언니들의 컬트한 장르 모험. K-콘텐츠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칙도 거부하며 여성 서사의 판을 키운 용기와 독심에 박수를.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외계인이 보이는 지효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 없이 사라진 지효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으며 ‘미확인’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서게 되는 4차원 그 이상의 추적극

더 글로리

감독 안길호 | 배우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 작가 김은숙 | 제작 윤하림, 김영규



*사진 출처: 넷플릭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술한 폭력 피해 여성들의 눈물 겨운 연대. 상처 입은 여성들이 이 사회를 향해 펀치를 날린다. 장르를 설득력 있게 다루는 작가적 역량과 이에 호응하는 스타 파워가 일으키는 파장이 작품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사회의 모순까지 가닿는 아주 힘이 ‘썸’ 드라마.

이화정(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마당이 있는 집

감독 정지현 | 배우 김태희, 임지연 | 작가 지아니 | 제작 장소정



프레임의 네 모서리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카메라는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두 여자의 천변만화를 포착한다. 새로운 각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가 없는 배우 김태희의 적극적인 전진과 캐릭터를 천천히 씹어 완전히 삼키는 배우 임지연의 전력이 만들어내는 휘도. 스스로의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한 두 여자의 사투는 스스로와 서로를 직시한 교차점에서 마침내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진명현(무브먼트 대표)

뒷마당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두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박하경 여행기

감독 이종필 | 배우 이나영 | 작가 손미 | 제작 박은경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여성 원톱 드라마. 주인공 박하경은 그 어떤 것에도 열심도 집착도 없다. 드라마가 이래도 되나, 주인공이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게 바로 ‘박하경’ 스타일이다. 걷다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 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2023년 최고의 힐링 없는 힐링 드라마. ‘힐링을 힐링하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사진 출처: 웨이브(Wave)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토요일 딱 하루의 여행을 떠나는, 국어 선생님 박하경의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기적 같은 만남을 그린 명랑 유랑기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사랑의 이해

감독 조영민 | 배우 유연석, 문가영 | 작가 이서현, 이현정 | 제작 박성은



*사진 출처: SLL

도무지 축약해서는 감상할 수 없는 드라마의 탄생.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는 네 남녀의 감정을 집요하게 따라간 이 드라마는 추적극에 가까운 연애물인 동시에 연애예능이 범람하는 시대에 당도한 연애다큐라고도 할 수 있다. 대상화의 뒤통을 피해 주체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인물로 입체화된 두 여성 캐릭터를 성실하게 연기한 배우 문가영과 금세록의 대표작이 탄생했다.

진명현(무브먼트 대표)

각기 다른 이해(利害)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理解)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드라마

슈룹

감독 김형식 | 배우 김혜수, 김해숙 | 작가 박바라 | 제작 박진형, 손재성



역사적 상상력을 화려하게 덧댄 퓨전 사극. 무엇을 상상하든 무조건 그 이상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익숙한 설정의 궁중 암투도 K-세계관의 승은을 입으면 PC한 웰메이드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난다. 신인 작가 박바라와 배우 김혜수의 환상의 워맨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내 자식들을 위해 기품 따윈 버렸다! 사고뭉치 왕자들을 위해 치열한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중전의 파란만장 궁중 분투기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어쩌다 마주친, 그대

감독 강수연, 이웅희 | 배우 김동욱, 진기주 | 작가 백소연 | 제작 안창현



영화 <백 투 더 퓨처>(1985) 이래 솔하게 제작된 타임슬립 장르물에서 ‘모녀 워맨스’는 거의 미개척 지대였다. 장성한 딸이 과거로 가 엄마의 십대 시절을 구원한다. 고전이 된 장르가 반갑고도 신선한 생명력을 얻었다.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1987년에 갇혀버린 두 남녀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시간 여행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감독 유인식 | 배우 박은빈, 강태오 | 작가 문지원 | 제작 이상백



장애인, 그리고 여성. ‘최약체’로 치부되던 아이টে็ม으로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콘텐츠 안에서의 투쟁이 대중과 만나기까지, 작품이 거처온 외적 투쟁의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 ‘허들’을 극복함으로써 다채로운 희망을 안긴 사례. 더 많은 소수자들의 이야기에 기회를 열어준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화정(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작은 아씨들

감독 김희원 | 배우 김고은, 남지현, 박지후 | 작가 정서경 | 제작 조문주



19세기 미국 네 자매 이야기가 현대 한국 자매들로 무리 없이 치환되는 고전의 마법. 여성 ‘작(가)·감(독)·배(우)’의 완벽한 조화가, 천박한 돈 잔치의 늪에서 수련처럼 미려한 연대의 서사를 틔워냈다.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

퀸메이커

감독 오진석 | 배우 김희애, 문소리 | 작가 문지영 | 제작 신혜연



*사진 출처: 넷플릭스

한 번은 만들어졌을 법한 드라마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치 드라마가 여성 배우들이 맘껏 그 실력과 매력을 펼칠 수 있는 판으로 재편된 것! 김희애, 문소리, 서이숙, 진경, 김선영, 김새벽, 윤지혜, 옥자연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배우들의 각축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몫을 다해낸다.

진명현(무브먼트 대표)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이자 대기업 전략기획실을 쥐락펴락하던 황도희가 정의의 코뿔소라 불리며 잡초처럼 살아온 인권변호사 오경숙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감독 이종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코로나 시국, 대중과 평단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낸 드물고 귀한 여성 서사물이었다. 그동안 〈전국노래자랑〉 〈도리화가〉등의 전작을 통해 여성 캐릭터를 흥미롭게 담아냈던 이종필 감독은 첫 OTT 시리즈물인 〈박하경 여행기〉를 통해 또 한 번 인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빠른 속도와 강한 자극이 대세인 OTT 시장에서 〈박하경 여행기〉는 포장도 내용도 심심해 보였지만, 뚜껑을 열자 이 담백함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하경의 여행기에는 여백이 많은데, 이는 도리어 보는 이들을 그 여정에 동참시키는 정확한 초대장이 된다. 또한 주인공 박하경 역할을 맡은 배우 이나영 특유의 호기심 가득한, 맑고 영똥한 매력은 이 여행기의 훌륭한 가이드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종필 감독은 ‘구태여’와 ‘억지로’ 없이 이 여행기를 보여주고 들려준다. 눈으로 들을 수 있고 귀로도 볼 수 있는, 때로는 마음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움은 OTT의 전력 질주 시대에 찾아온 느닷없는 뒤로 걷기였다.

진명현(무브먼트 대표)

Filmography

양상블(2012), 전국노래자랑(2013), 도리화가(2015),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박하경 여행기(2023)

작가 박바라



〈슈룹〉은 지금의 현실을 되비추는 알레고리로서 조선시대 궁중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웰메이드 퓨전 사극이다. 왕자들의 신박한 사교육 비법을 앞세워 ‘조선판 SKY 캐슬’로 불리며 극적 몰입감을 높이는 한편,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계급이 달라지는 왕자들, 즉 계급의 세분화를 통해 그동안 드라마에서 재현되었던 갑과 을로 구성된 이분법적 K-세계관을 낫설게 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극 중 ‘성공한 을’로 그려지는 중전(김혜수)과 대비(김해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이상적인 ‘갑’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 시도는 폭력적인 사적 복수가 팽배한 K-드라마 세계관에서 유의미한 성찰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시리즈 분량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제각각의 성격을 부여해 매력적인 캐릭터로 창조해낸 점 또한 드라마 속 성소수자 에피소드가 단순히 사극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사 전략이 아닌 작가의 ‘백델스러운’ 세계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신인 작가의 앞날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Filmography

슈룹(2022)

제작자 조문주



〈갯마을 차차차〉 〈빈센조〉 〈해피니스〉 〈유미의 세포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일타스캔들〉까지… 조문주 CP가 제작해온 작품들은 〈작은 아씨들〉이 ‘조문주 사단’의 공든 탑이란 걸 말해준다. 〈유미의 세포들〉 배우 김고은, 〈빈센조〉 김희원 연출이 영화 〈아가씨〉의 정서경 작가와 만나 제대로 시너지를 터뜨렸다. 합이 좋은 여성 스타들의 성공적인 패키징을 성사한 건 제작자로서의 ‘촉’뿐만이 아니다. 그와 작품을 함께한 동료들은 그가 부재한 인터뷰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조문주’를 신뢰의 다른 말로 언급한다. 그의 작품들은 평범함 속 비범한 찰나를 낚아 올린다. 평일 점심 백반집의 밑반찬이 때때로 특별한 날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잊지 못할 맛을 낸다는 걸 잘게 쪼갠 일상의 감정들로 독심 있게 보여준다. 사각지대에 묻혀 있던 여성, 소수자의 얼굴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낸다. 〈작은 아씨들〉은 그 대표작으로 남을 만하다.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Filmography

(아는 건 별로 없지만)가족입니다(2020), 빈센조(2021), 갯마을 차차차(2021), 유미의 세포들(2021), 해피니스(2021), 작은 아씨들(2022), 일타스캔들(2023)

배우 임지연



*사진 제공: 아티스트컴퍼니

〈더 글로리〉란 드라마 제목은 몰라도 온 국민이 ‘연진이’를 알았다. 학교 폭력 가해자 박연진. 스타 작가 김은숙이 십대 딸이 던진 학폭에 관한 난제를 피해자의 서슬 퍼런 복수극에 담은 이 드라마에서, 임지연은 기꺼이 그와 같이 칼춤을 춘 망나니였다. 배우로서 쌓은 모든 걸 걸고 철저히 금수저 학폭 가해자가 됐다. ‘납작한 악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빌런의 얼굴에 전에 본 적 없는 복잡한 욕망의 경로를 새겨냈다. 자신의 과거 악행에 어린 딸이 볼모로 잡힌 젊은 엄마, 풍족한 아내, 자존심만 남은 경력 위기 아나운서의... 〈마당이 있는 집〉의 추상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임신부였다. 서늘한 복수의 순간에도 뱃속에 품은 자식은 굶기지 않으려는 동물적 연기가 한 사람 안의 극과 극 온도차를 납득시켰다. 어쩌면 익히 봐온, ‘드라마틱한’ 여성 캐릭터에 피와 뼈를 부여했다. 그 어떤 지독한 삶도 임지연을 만나면 생생한 ‘현재성’을 획득한다. 드라마와 현실을 잇는 ‘지금, 여기의 얼굴’로 임지연은 2023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Filmography

인간중독(2014), 간신(2015), 럭키(2016), 유체이탈자(2021),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2(2022), 더 글로리(2022), 마당이 있는 집(2023), 국민사형투표(2023)

벡델데이2023 프로그램

벡델초이스10 상영

전년도에 이어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을 극장 상영함으로써 벡델데이의 취지와 의의를 관객과 나누었다. 올해에는 영화 상영 극장으로 공간을 옮겨 전반적인 상영 컨디션을 높였고, 일부 회차(〈소울메이트〉, 〈유령〉)는 상영 후 오프라인으로 감독, 제작자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연출 의도 가운데 성평등과 문화다양성, 창작 과정에서의 재현 윤리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백델초이스10 상영 시간표

9/1(금)		9/2(토)		9/3(일)	
				11:00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13:00	외계+인 1부	14:00	백델 토크 1.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	14:00	유령
16:00	드림팰리스	16:00	백델 토크 2.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17:30	성적표의 김민영
19:00	소울메이트	19:00	다음 소희	19:30	정직한 후보2



상영 결과

순번	상영작 / 프로그램명	상영 일정	관객 수(명)
1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시상식 & 백델리안과의 만남 백델 토크 1.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	2023년 9월 2일(토) 14:00	85
2	[영화 부문] 백델리안 시상식 & 백델리안과의 만남 백델 토크 2.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23년 9월 2일(토) 16:00	87
3	외계+인 1부	2023년 9월 1일(금) 13:00	12
4	드림팰리스	2023년 9월 1일(금) 16:00	36
5	소울메이트(GV)	2023년 9월 1일(금) 19:00	107
6	다음 소희	2023년 9월 2일(토) 19:00	68
7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2023년 9월 3일(일) 11:00	70
8	유령(GV)	2023년 9월 3일(일) 14:00	107
9	성적표의 김민영	2023년 9월 3일(일) 17:30	84
10	정직한 후보2	2023년 9월 3일(일) 19:30	35

관객과의 대화 1 〈소울메이트〉

- 모더레이터: 이화정 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 패널: 민용근 감독, 변승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대표
- 일시: 2023년 9월 1일(금), 19시
- 장소: 인디스페이스



이화정 안녕하세요? 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오늘이 불금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관객들 네!

이화정 오늘 보신 〈소울메이트〉는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긴 시간 동안 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파문이 관객들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민용근 감독님은 영화 개봉 당시 만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영화를 제작한 변승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대표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박수) 감독님과 대표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용근 안녕하세요. 민용근입니다. 이 영화가 3월에 개봉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극장에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고요. 특히 인디스페이스를 애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디스페이스에서 〈소울메이트〉가 상영이 되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델초이스10 감독 GV

- 변승민**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를 제작한 변승민입니다. 늦은 시간이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저의 작품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화정**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사실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별로 없으셨죠?
- 변승민** 네. 그렇죠.
- 이화정** 오늘 어떤 각오를 하고 오셨나요?
- 변승민** 그동안 많이 안 알려졌던 비하인드, 그리고 감독님의 시선과는 다른 부분에서 드릴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이화정** <소울메이트>는 백델데이2023 백델초이스10에 선정된 작품이에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봉한 작품들을 심사해서 성평등의 관점으로 영화가 구현한 지점을 평가하고, 그중에 10편의 작품을 선정한 것인데요. 먼저 감독님은 백델데이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가 4회째거든요.
- 민용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정이 된 영화들도요.
- 이화정** 작품을 좀 뜯히게 만드셔서 한 번도 초청이 안 된 거겠죠?
- 민용근** 그럼요.
- 이화정** 대표님께서 시리즈와 영화를 오가면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셨어요. 그중에서 <D.P.>같은 경우는 예심에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웃음) 제작하신 작품을 보면 백델데이에 초청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백델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요?
- 변승민**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소울메이트> 이전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영화, <방법>이라는 드라마 등 여성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꽤 있어요. 이번 기회에 <소울메이트>로 초대를 받아서 기쁘고요. <소울메이트> 말고도 <정이>도 함께 백델초이스10에 초청되어서 영광입니다.
- 이화정** 알겠습니다. 먼저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원작이 있잖아요? 초반 과정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 민용근** 2019년 봄에 변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중국영화가 있는데 이걸 리메이크 하려고 한다고요.. 원작은 제목만 알고 정작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연출 제안을 받고 영화를 본 뒤에 처음에는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성 감독님이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전작인 <혜화,동>과 결이 비슷한 영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팅 전에 한 번만 더 봐야겠다

다 생각했다가 어떤 한 장면에서 확 꽃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스토리보다는 감정이 먼저 거든요. 그 감정을 시작점으로 이야기와 캐릭터를 떠올리는 편인데, 그런 걸 느낀거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화정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었나요?

민용근

영화 후반부에 두 친구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어떤 인연은 굉장히 먼 길을 돌고 돌아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 때나 여러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개봉 3주 차에 접어들 때 어떤 관객과의 대화를 앞두고 〈소울메이트〉를 다시 봤거든요? 그때는 다른 이유로 가슴을 크게 치더라고요. 각자의 인생에서 바닥을 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싶었던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든 관계든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미소와 하은이도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순간을 겪고 난 뒤에 굉장히 차분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되죠. 그 순간의 감정이 제가 겪었던 어떤 시기와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영화를 연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화정

감독님이 영화의 단초가 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와 감정에 대한 디테일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여성 감독이 아니라 민용근 감독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변승민

지금 돌아보면 남성 감독, 여성 감독이라는 구분보다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누군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민용근 감독님의 동료이기 이전에 팬이거든요. 〈혜화,동〉도 있지만 단편 대부분을 운 좋게 스크린으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 감독님은 인물을 사랑하고, 그 인물과 영화 안팎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솔한 표정을 잡아낼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인물의 얼굴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야 하는 영화를 기획하게 된다면, 민용근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울메이트〉는 수많은 장르물과 상업영화의 홍수 속에서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저 역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영화였기에 기획한 것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도 꺼내볼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감독님에게 주저 없이 이 작품을 제안드렸습니다.

이화정

대표님께서 회사 설립 이전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비롯해 ‘클래식’이라 불릴 만한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작업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영화를 한국의 창작자들과 함께 다시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규모 면에서 많은 관객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작품이었거든요. 초반에 제작자로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변승민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투자배급사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 중 하나로 일했는데요. 흔히 말하

백델초이스10 감독 GV

는 ‘흥행 코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흥행을 했던 배우, 감독, 장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면 될 거라는 선입견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영화산업에서 흥행 코드의 공식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관습적으로 선택했던 작품들이 하나씩 기존과 다른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고요.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에게 더 새로운 장르, 배우들의 조합,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또 이 작품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원작을 본 한국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작과 같은 줄거리이면서 좀 더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편적으로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의 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답게 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이길 바랐고요. 그런 영화라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감독님이 각색, 연출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을텐데요. 미소와 하은이라는 두 여성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 과정의 순간순간이 원작과 굉장히 다르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어요. 각색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민용근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 버전의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1988년생의 미소와 하은이가 주인공인 버전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아왔던 동시대 여성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지요. 영화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인물들의 디테일은 제 경험으로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취재를 많이 했지요. 그중에 크게 영감 받았던 취재가 있었는데요. 건너 건너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친구 사이여서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두 분의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기를 넘어서면서 외부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 관계로 성숙해지는 이야기였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둘의 관계를 어떤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해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미소와 하은의 관계를 어떤 언어로 규정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규정이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규정되느냐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랄까,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안으로 삭이면서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이랄까. 대단한 스토리가 없는데도 웬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미소와 하은의 관계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과시적이지 않고 내적인 힘이 강한 관계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화정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부분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주고,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주인공들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요.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는 영화가 거의 공룡처럼 멸종되는 시기이고요. 두 분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어떤 영화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 변승민** ‘같이 보고 싶은 영화’라는 지점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최초의 관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특히 최초의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유형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명 시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강한 맛, 매운맛 영화들 사이에서 〈소울메이트〉처럼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죠. 더군다나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명확한 선을 가지고 질문과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보다는 어떤 틈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입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입소문에 힘입어 ‘N차 관람’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흥행 공식도 강화해 보자는 생각이었고요. 누군가 시도할 거라면, 좀 더 빨리 해보고 빨리 배워 보자는 목표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화정** 장르적인 특성도 그렇고, 여성 중심의 서사이기 때문에 흥행 공식이나 상업영화 흐름에 역행하는 작품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 변승민** 영화라는 매체가, 특히 상업 장편영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곳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책임과 숙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능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언급했던 것 같아요. 투자 과정에서도 다음 시대, 다음 세대의 관객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어필했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시도와 목표에 동의해 주시는 배급 관계자와 마케팅 관계자들이 계셔서 끝까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진행했습니다.
- 이화정** 대표님께서 아까 〈혜화,동〉을 비롯해 이전 단편영화들까지, 민용근 감독님 특유의 ‘결’을 알아보고 이 영화를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으로 인해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용근** 첫 영화의 장르 혹은 결이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혜화,동〉을 만들고 제안 받았던 영화가 대부분 비슷한 느낌과 장르였어요. 반대로 저는 다음 작품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렇게 개발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오히려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사실 〈소울메이트〉를 제안 받았을 때 스스로 그렇게 규정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전작의 느낌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했는데요. 〈소울메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한 무렵부터는 그런 고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외피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전혀 다른 결의 영화나 시리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애써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이화정** 감독님이 〈혜화,동〉을 만드실 때만 해도 지금처럼 다양성의 측면에서 성평등 영화를 생각하지 않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감독님은 여성 주인공이 연애와 사랑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셨잖아요. 당시에도 이런 지점이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흥행에서는 주류 남성 서사에 묻히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렇다면 〈소울메이트〉를 개봉하고 나서 관객과 만날 때 이전과 다른 변화 또는 차이를 체감하셨나요?

백델초이스10 감독 GV

민용근

〈혜화,동〉을 만들 때는 여성 서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그런 용어와 정의들이 막 샘솟으려던 때였고요.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여성 서사를 만들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변화가 느껴져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소울메이트〉의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리메이크에서 원하는 방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점에 구속되는 느낌도 없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여성 서사에 대한 짐을 조금 덜어내고 그냥 캐릭터로 접근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백델데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래의 어떤 시기에는 여성 서사라는 규정이 없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분명 이전과 다르지만 규정에 대한 약간의 압박이 있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정

여성 서사라는 말이 없었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처럼 여성 서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 거겠죠. 감독님 말씀처럼 그런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 시기도 올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농담처럼 “백델데이가 잘되려면 백델데이가 필요 없는 날이 와야 한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런 취지를 창작자인 감독님도 공감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달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서사가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야 그걸 연기할 배우도 발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여러 장르에서 좋은 여성 배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여성 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소울메이트〉역시 젊은 여성 배우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작품이고요. 김다미 배우는 특히 액션영화 〈마녀〉를 막 끝내고 나서 이 작품에 출연했어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중요하겠지만 변승민 대표님과 함께 작업한 〈마녀〉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젊은 배우들을 찾아내는 건 어땠나요?

변승민

〈마녀〉의 투자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조민수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이 지금 기준으로 치면 전형적인 한국의 어떤 나이대 배우가 많이 보여줬던 악역 캐릭터 인데요. 제가 박훈정 감독님께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꼭 남성일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제 질문에 동의해 주셔서 여성으로 바꾸는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졌고요. 그럼 어떤 배우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와 같이 〈피에타〉를 한 조민수 배우님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들으시자마자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민수 배우님께 역할을 제안드렸는데, 배우님이 남성 캐릭터로 쓴 대사를 하나도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대로 나한테 주면 내 방식대로 소화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녀〉를 통해서 굉장히 사소한 질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결을 바꿀 수 있었던 경험을 했어요. 〈마녀〉를 같이 했던 김다미 배우는 젠더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 세대의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앞으로 도전적인 작품을 하게 된다면 〈마녀〉의 경험을 함께했던 김다미 배우와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화정

그동안 고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라 할지라도 제작자나 감독의 새로운 시선이 개입되면 배우 역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과정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

나갔는데요. 관객 여러분도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죠? 또 백델데이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지점에 대해서도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객 1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미지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이들의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은 두 주인공의 감정이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하셨나요? 우정에 가깝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감독님의 단편인 〈고양이춤〉도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용근

우정과 사랑 사이의 미묘함을 담고 싶었다기보다는, 어떤 언어로 규정하더라도 사람이 사람한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면 사랑이고요. 미소와 하은이 친구로서 나눌 수 있는 적당한 선의 우정보다는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 때 언어를 먼저 두고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을 떠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내가 가장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들을 더 잘 발견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미소에게는 하은이, 하은이에게는 미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화정

감독님에게 있어 ‘제작자 소울메이트’는 변승민 대표님인거죠? 민용근을 가장 민용근답게 만들 수 있는 제작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

민용근

변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단편영화를 할 때부터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투자배급사의 팀장으로 계실 때 같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알고 지냈죠. 그런데 〈소울메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시리즈도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느낀 것은 이분이 저를 되게 자유롭게 해주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라도, 맡은 직책 때문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도 저를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테일이나 감성이 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시거든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점이 잘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소울메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화정

한국영화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뉴웨이브 라는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 당시 좋은 감독들이 발굴된 동력이 무엇이냐고 하면, 창작자나 감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도 있겠지만 제작 시스템이나 제작자들이 그 다양성과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고 실현 가능하게 뒷받침한 것이 크거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분이 바로 변승민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뿐 아니라 시리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소울메이트〉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꺼

백델초이스10 감독 GV

내기는 그렇지만 변승민 대표님이 제작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변승민 대표님은 ‘영화감독 소울메이트’가 민용근 감독 한 분이 아닐텐데요.(웃음) 굉장히 다양하시죠?

변승민

저는 좋은 동료로서 작업을 이어가고 싶은 감독님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민용근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저도 굉장히 편하게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즐겁게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오랜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관객 2

백델데이 참여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제가 <소울메이트> 무대인사와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두 작품을 만드신 분을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울메이트>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아니라 도시였다면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싶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용근

미소와 하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해서, 먼 거리가 될 장소가 필요했던 게 1차적인 이유이고요. 물리적인 거리에 심리적인 거리가 느껴지는 곳이 섬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제주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쓸 무렵 제주도에 가게 되었는데, 서귀포나 협재는 미소와 하은이 있을 만한 곳들이 아닌 것 같았고요. 제주도 동쪽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를 실제 영화 촬영지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가긴 했지만 그때 제주도에서 구체적인 장소들이 정해지기도 했어요. 또 그 공간의 느낌이 역으로 인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소울메이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여름의 느낌이에요. 습도가 높고 우거진 나무가 보이는. 그런 부분은 찬란한 젊음의 느낌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질감으로 만들어서 후반부의 도시와 큰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화정

제작비 상승의 요인이 되었겠네요.(웃음)

민용근

그렇기도 하지만 작품에 꼭 필요했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태풍이 4번인가 5번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개면 바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촬영 스태프들과 좋은 그림을 잘 뽑아낸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이화정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관객 3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진우는 몰랐고 미소는 알았던 하은이 오른쪽 볼 점처럼 감독님이 화면 너머로 미소와 하은이를 연기했던 두 배우를 보면서 특별하게 보였던 점이나, 끌어내고 싶었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용근** 실제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영화에 많이 반영되었어요. 김다미 배우가 말할 때 하는 습관, 특이한 취향, 소니 배우의 독특한 부분들 등 알게 모르게 영화에 들어갔죠. 김다미 배우는 무심한 듯하면서 섬세하게 배려하는 스타일인데, 그 점도 캐릭터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나리오에 미소라는 캐릭터의 고유한 점이 담겨 있지만 영화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미소는 김다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들이 녹아 있는 것이죠. 전소니 배우는 글씨가 되게 독특한데요. 저는 그걸 ‘소니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시각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꼭 영화에 넣고 싶어서 영화 말미에 편지를 받는 장면을 넣기도 했습니다.
- 이화정** 두 배우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실제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또 질문이 있나요?
- 관객 4** 원작 소설의 제목은 ‘칠월과 안생’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영화 원작의 제목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두 제목에는 어떤 아련함이 들어 있고, 그 정서가 영화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을 〈소울메이트〉라고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 민용근** 미소와 하은이라는 캐릭터의 관계에 좀 더 심플하게 집중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단어를 가져와서 단어 자체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소울메이트〉였고 끝까지 〈소울메이트〉가 됐습니다.
- 이화정**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 관객 5** 재밌게 잘 봤습니다. 원작으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포일러가 있는 영화가 되잖아요. 그 지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 좀 더 감정적으로, 걱정적으로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변승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갈등은 없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서 러닝타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촬영 회차는 흥행 성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회차 안에서 영화가 나와야 우리 영화가 흥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감독님이 편집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드렸어요.
- 민용근** 의견 차이는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감정을 걱정적으로 담아내느냐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작 영화는 보다 걱정적이고 날것의 느낌이 강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가 스토리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인데요. 같은 스토리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장르로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발산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정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응축된 감정을 이 영화의 동력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게 원작과의 차별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백델초이스10 감독 GV

이화정

아쉽지만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 전반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영화를 읽는 방법이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백델데이의 관점에서 두 분이 어떻게 작업을 이어 가실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OTT 플랫폼 환경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요구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실천도 해나가시는 것 같고요. 시장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승민

저희 회사 로고가 약간 보라색이에요. 차갑고 열정적으로, 또 소수를 위한 시선을 항상 겸비하는 취지로 회사 창립 초기부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을 선택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싶고요. 다음 작품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민용근 감독님과 이미 시리즈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을에는 전종서 배우가 나오는 감성과 액션이 뒤섞인 영화가 나오고요.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웃음) 그리고 <소울메이트>의 주인공인 전소니 배우가 촬영한 시리즈도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시대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먼저 소비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외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요즘은 전 세계 관객들이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체감할 만큼 확산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문화부터 인종 갈등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 받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방면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학습과 경험을 넘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우리가 만들고 볼 수 있는 작품의 층위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진 고정된 시각 자체가 변화하면, 흔히 말하는 한국영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다양성이 넓어지고 이걸 향유할 시청자와 관객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과정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변승민 대표님의 365일이 얼마나 바쁠지 짐작이 되네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백델데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용근 감독님은 우리가 백델테스트 조항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런 시각과 사고를 장착한 작품들을 선보이셨는데요. <소울메이트>로 다시 만난 관객들 앞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민용근

<소울메이트>에 극사실주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걸 영화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오랫동안 응시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던 사람이던 간에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듣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죠.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도요. 지금 후반작업하는 드라마는 외적으로 <소울메이트>와 정반대의 이야기긴 한데요. 스타일과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도 않더라고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는 시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확하게 바라보려는 태도만 견지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화정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 자체가 다양한 시각을 얻어가는 계기가 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뿐만 아니라 객석에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백델데이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시상식과 백델토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까지 다른 작품들이 상영되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백델초이스10 감독 GV

관객과의 대화 2 〈유령〉

- 모더레이터: 손희정 영화평론가(프로젝트38)
- 패널: 이해영 감독
- 일시: 2023년 9월 3일(일), 14시
- 장소: 인디스페이스



손희정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할 손희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해영 안녕하세요. 이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희정 〈유령〉이 백델데이2023에서 백델초이스10으로 뽑혔고 이하늬 배우가 영화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에도 선정되었어요. 소감 어떠신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해영 일단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업할 때 제 스스로 젠더 감수성을 신경 써왔다고 생각하는 데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적 기쁨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손희정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령〉 개봉했을 때 SNS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다 하는, 엄청나게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나왔다’는 입소문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반응 좀 보셨나요.

이해영 〈유령〉을 좋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일단 여성 관객 분이 많았는데요. 그분들께서 가장 좋아하고 열광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작업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은 DM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여성 캐릭터들의 뒷이야기나 숨겨진 서사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답을 하면서 그

분들께 소통되는 것이 그런 코드였구나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희정

DM으로 받은 질문 중에 ‘이건 좀 신박하다’고 했던 게 있을까요?

이해영

사실 매번 다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을 하려면 저도 늘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고양이 하나짱 밥은 누가 주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아마 천계장 집 뒤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통해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이 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경이 하고 있던 목도리 패턴이 정확히 어디 제품인지, 그 패턴을 혹시 받아볼 수 있느냐 같은 류의 질문도 많았고.(좌중 웃음)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 하나짱의 밥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손희정

사실 한동안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바로 천계장이 하나짱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좌중 웃음) 그런데 하나짱이 사실 고양이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하나짱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영

하나짱은 ‘미슈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경미 감독 고양이입니다. 영화 <외계+인 1부>에서 류준열 배우가 연기하는 ‘무룩’이 가진 부채에 두 마리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좌왕우왕’이라는 캐릭터인데, 거기에서 좌왕에 해당하는 고양이가 하나짱이었습니다.

손희정

하나짱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에 미슈카 계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웃음) <유령>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감독님께 DM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유령>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상업영화가 예컨대 레즈비언을 다룰 때는 말하자면 부치(butch) 캐릭터가 비가시화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펌(femme)만 나오거나, 반대로 독립 다큐나 독립영화에서 레즈비언 서사가 그려질 때는 펌이 비가시화되고 부치만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해영

듣고 보니 그런 면이 있네요.

손희정

그렇다면 주류 서사에서 레즈비언 부치를 못 견뎌 하는 어떤 감성이 있는 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질문 같은 게 저한테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좋았던 건 이하늬 배우가, 물론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퀴어이기는 하지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부치’라고 부르는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신체성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이런 레즈비언상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해영

일단 퀴어를 목표로 해야겠다고 의식하거나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유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이야기는 원작과 다르게 유령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령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유령’으로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박차경’이라는 캐릭터를 먼저 넣고 ‘이건 박차경의 이야기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차경이라는 인물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대의에서 찾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백델초이스10 감독 GV

것에서부터 출발하되 그게 굉장히 절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긴 한데 거기에 남성을 넣고 싶진 않았고요. 남성이 개입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떤 위계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의 사랑이 아닌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간 것 같고,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 지금의 난영과의 관계나 서사가 설정된 것 같고요. 사실은 부치, 펴 같은 구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걸 잘 알지 못하는데, 이하늬 배우를 가장 먼저 박차경 캐릭터에 대입을 시켰고 ‘이건 이하늬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하늬를 놓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한 것 같아요. 이하늬 배우는 키도 크지만 피지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굉장히 큰 사람, 큰 인격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그 느낌을 캐릭터 안에 녹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부치’라고 불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손희정

이하늬 배우와 작업하시는 감독님들께서는 대체로 ‘아주 큰 그릇의 배우’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직한 후보> 시리즈를 만든 장유정 감독도 <부라더>를 찍을 때까지는 이하늬 배우가 대중영화에 많이 나오던 때가 아니니까 “아직 한국영화가 이하늬를 충분히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하늬 배우가 이전까지 보여온 어떤 발랄함이라든가 <극한직업>에서의 유머 같은 것과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유령>에서 선보이면서 저는 ‘드디어 (이전 면모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하늬를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하늬 배우와의 작업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해영

일단 제가 처음에 이하늬 배우를 두고 시나리오를 쓸 때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때였어요. 혼자 상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초고를 제일 먼저 준 배우이긴 하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건 그로부터 또 한참 후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행히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하늬 배우가 그간 보여온 캐릭터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여성성이 강조되는 섹시한 이미지인 반면, 실제 이하늬라는 사람은 박차경에 더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차경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MBTI로 따지면 E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웃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운세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대륙을 품을 만한 품을 가진 여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실제 그런 걸 느껴요. 일례로 현장에서 단역 배우나 막내 스태프 들의 컨디션까지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고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결국에는 현장에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항상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이하늬 배우는 사실 <유령>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했다기보다 영화 안의 수많은 캐릭터와 스태프, 현장을 끌어안으면서 모든 과정을 견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손희정

<유령>이 흥미로운 게 6~7명가량 되는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부딪히는데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이 뚜렷하게 디자인돼 있어서 모두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 중 3명의 여성 캐릭터가 이솝 배우가 연기한 난영, 박소담 배우의 유리코(강옥), 그리고 박차경인데 각각의 개성이 강하

고 몸을 쓰는 방식도 또렷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액션도 난영, 유리고, 차경 다 다릅니다. <유령>을 보고 난 다음에 <킬링 로맨스>를 보면서 더욱 그 생각을 했는데요. <킬링 로맨스>에서 이하늬 배우가 살을 빼고 굉장히 위축돼 있는 주인공을 연기하기 때문에 그 신체가 <유령>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유령>의 박차경은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준지 역과 동등하게 맞붙기도 하고요. 여성 액션 디자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영

일단 박차경 캐릭터는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육탄전을 벌일 때 성별이 느껴지지 않고 동물적인 감정이 살로 부딪히는 느낌이면 좋겠다, 남자와 여자가 붙었을 때 ‘여자가 잘 싸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을 놓고 액션 설계를 했고요. 또 이하늬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시원시원한 느낌을 액션 디자인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하늬에게는 가급적이면 긴 총, 장총을 메게 했고 박소담 배우는 상대적으로 아담하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또 액션을 소화할 때의 움직임도 이하늬가 길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라면 상대적으로 짧고 세거든요. 그래서 박소담 배우는 일단 재빠르게 구른다거나 바(bar)를 넘어가는 날렵함을 원했고, 또 식탁 위에 올라가서 칼로 카이토의 손을 찍을 때에는 짧게라도 실제 비상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리고 권총을 쥐어줬어요. 제 로망에 의해서 쌍권총을 들게 되었죠.

손희정

그건 무슨 로망인가요?(웃음)

이해영

시대적으로는 조금 충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쌍권총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원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좌중 웃음) 한편 이솜 배우는 정말 좋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 감정이 가슴에 딱 들어차 있을 때 흔들림 없는 눈빛 같은 게 있죠. 그 단단함이 찰나라하더라도 느껴졌으면 했어요. 난영 캐릭터는 달릴 때 눈빛에 두려움 없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데 그렇게 달려 마침내 차경을 만났을 때, 그 눈빛에 순간적이더라도 ‘내가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가 담겨 관객에게 기억되길 바랐죠. 사실 달리는 장면을 찍는 게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총독한테 총을 쏘고 복도를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복도가 실제 로케이션이 너무 짧아서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였거든요. 뒷모습만 촬영이 가능해서 모든 촬영팀과 촬영감독마저도 앞모습을 포기하고 뒷모습으로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구태여 이걸 다른 지역에 있는 세트장 주차장에서 다시 찍었어요.(웃음) 배우가 뛰면 스태프들이 뒤에서 이만한 크로마키를 양쪽에서 들고 같이 뛰면서 찍고 로케이션에 있던 복도를 합성해서 붙인 거죠. 사실 크로마키를 지우고 배경 합성하는 건 일반인도 알 만큼 간단한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리는 장면이다 보니 조명과 움직임 등이 맞지를 않아서 그 컷 CG 작업을 하는 데에만 대략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좀 고생하면서 찍었던 신입니다.

손희정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봤네요. 이솜 배우가 산에서 뛰고 구를 때까지의 신 전체를 너무 좋아해서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살짝 돋았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던 순간이 두 번 있는데, 난영이 죽을 때와 천계장이 죽을 때였어

백델초이스10 감독 GV

요.(좌중 웃음) 영화 <소공녀> 속 이솜 배우의 모습도 좋아하지만 <유령> 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더 보고 싶는데 죽어버려 속상했고, 천계장도 너무 좋아 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천계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어요. 그가 욕망하는 것이 유리코인지 그녀의 구두인지도 내내 궁금했구요. 천계장 캐릭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영

천계장의 존재를 설명하자면 약간 퀘스천(question)의 ‘Q’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유리코나 그의 구두를 쳐다볼 때 섹슈얼한 텐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리코든 다른 여자 캐릭터 누구든 천계장을 볼 때 ‘안전한 사람’으로 느껴지면 좋겠다, 어떠한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인간 고양이’ 같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천계장은 목표가 그냥 개인적인, 소확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시대에 소확행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최악이 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총독부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친일’일 수 있었던 시대인데, 그 와중에 감히 고양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손희정

시대를 소급해 생각하면 반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받아야 할 사과가 있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종종 영화에 담아낸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건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서부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끼리는 이해영 감독이 ‘경성 3부작’을 할까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건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과 <유령>을 붙여 놓고 생각했을 때, 흥미로운 캐릭터가 둘인데 하나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서 엄지원 배우가 연기한 교장, 그리고 <유령>에서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준지 캐릭터입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황국신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캐릭터를 그리실 때 관객과 어떤 부분에서 소통하고 싶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해영

일제강점기를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토픽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라는 것이 개인들에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애국 혹은 독립 그리고 조국이라는 개념이 개인화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해 삶의 태도를 마련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지는 교장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그에게는 태생적인 콤플렉스를 더 줘서 그걸 좀 더 극대화했죠. 결국에는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마지막 준지가 하는 말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물려가면서 영원히 싸워봐야 너희들은 결국 질 것이다”라는 단언이 결국 그의 믿음이었고, 그렇게까지 자신의 조선인 핏줄을 부정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캐릭터가 결국에 지금의 관객들이 대의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닌, 그 당시를 살았던 다양한 인간 군상을 경험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객이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천계장이나 준지 같은 캐릭터가 나왔고, 사실 박차경도 조금쯤은 개인적인 이유로 독립운

동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물론 유리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의를 위해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인물에 가까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물 층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희정

‘다양한 인물 층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묘사한 그 캐릭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성별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조금 나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박해수 배우가 연기한 카이토도 그렇지만 남성 캐릭터의 경우 요즘 온라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약간 ‘하남자’ 같은 느낌이고 여성들은 걸크러시가 넘치는데요. SNS에서는 영화가 의도적으로 하남자를 그리고 있다는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해영

네.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기도 했죠.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 모니터 시사에서 보통 블라인드 시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주관식 란이 있습니다. 신마다 점수 매기는 게 끝난 다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걸 쓰는 건데, 많은 젊은 남성 관객 분들께서 비슷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에 따라 나누는 거 좀 그렇다”라는 말을 굉장히 심한 욕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의도된 건 아닙니다. 지난해 벡델데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정서경 작가가 여성 서사를 늘 쓰려고 하지만 여성 캐릭터를 멋있게 그리는 데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셨죠. 오히려 여성들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드라마화할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만약 진짜 편을 갈라서 남성보다 여성 편을 더 들려는 사람이라면 정서경 작가 말대로 오히려 이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훨씬 더 많은 플롯을 구성했겠죠. 제가 여성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웅시한 것도 아니고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독전>이나 <유령>처럼 장르성을 지향하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때는 사실은 장르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르물은 플롯 위주로 흘러가는 와중에 인물은 약간 이야기에 동원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항상 장르와 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인물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할애하고 싶거든요. 인물에 대한 내 애정을 어떻게든 더 녹여내고 싶어요. 장르의 컨벤션(convention)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중에 열심히 이야기를 수행하면서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 모두 자기 몫의 메시지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뿐,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적은 없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손희정

저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과 <유령>을 묶는 걸 더 좋아하지만, 감독님 작품 안에서 보자면 <독전>과 <유령>이 더 닮은 영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독전>같은 경우 누아르가 전통적으로 해온 것처럼 남성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유령>은 젠더를 반전시켰을 뿐 누아르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해영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전>이 <유령>만큼 캐릭터 간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례로 똑같은 디렉션을 줬을 때 여성 배우가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공감, 혹은 어떤 분위기나 공기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 배우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령>에 ‘이해영스러운 공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백델초이스10 감독 GV

손희정

사실 <유령> 속 남성 캐릭터들은 굉장한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설경구, 서현우, 박해수 같은 배우의 신체를 입는 순간 극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을 가진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남자 배우 캐스팅도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하사탕>으로 설경구를 알게 된 옛날 사람으로서 설경구를 정말 예쁘게 찍은 또 하나의 영화라는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설경구의 아름다움, 어떻게 포착하셨습니까?

이해영

저는 <처녀들의 저녁식사>로 설경구를 아는 옛날 사람이고요.(웃음) 사실 처음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이하늬는 절대 아름답지 않게 찍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진 바싹 마른 겨울 나무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하늬 배우는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꼭 입히고 싶었습니다. 색깔도 드러나지 않고 메이크업도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반면 설경구 선배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최대한 예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손희정

많은 감독님들이 설경구 배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해영

박차경 역을 가장 먼저 캐스팅하고 그다음에 박소담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사실 <유령>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꽤 큰 도전이었어요. <독전>이 꽤 흥행했던 터라 사실 제가 그때 소위 말해 ‘주가’가 좀 꺾였을 때였고, 제작사는 천만 영화인 <택시운전사>를 만든 더램프였어요. 그런데도 투자를 알아보면 ‘여성 서사인데 예산이 조금 크다’는 게 첫 번째 피드백이더라고요. 실제 필요 예산에서 몇 십 퍼센트 정도를 줄이면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요. 여성 서사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서 준지 캐릭터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좀 묵직한 배우 분이 들어와 주셔야 끝이 갖춰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 시나리오를 드렸죠. 시나리오를 보고 한 번 만났는데 왜 이걸 본인이 해야 하는지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덮어놓고 “제가 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좌중 웃음) 캐릭터나 주제, 장르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절하실지도 모를 것 같은 분위기라 “지금은 답하지 마시고 수정고를 통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드리겠다”라고 멋있는 척을 좀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제 수정을 했습니다. 크게 안 고쳤지만 웬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어떤 마법의 착시 같은 걸 봤죠. (좌중 웃음) 물론 서사를 조금 더 보강했는데 그때 준지 캐릭터의 딜레마 같은 것을 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고, 감사하게도 선배님이 손을 잡아주셨죠. 사실 <유령>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하늬 배우가 이것을 선택해줬기 때문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피가 돌고 살이 붙고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력을 얻게 한 건 설경구 선배님이 이 작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설경구 배우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은 배우가 좋은 작품을 알아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 서사에 남자 배우를 섭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 이해영** 그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이도 참 차별적인 생각인데, 남성이 메인에 서고 여성이 서브로 혹은 보조하는 구도엔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이것이 역전된 건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요즘은 여성 주인공인 작품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령>을 기획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여성이 투톱으로 나선다고 하면 매우 도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이죠.
- 손희정** 여전히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은 호러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성 주인공인 것이 이상하지 않다, 대단한 도전인 건 아니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호러가 아니라 SF라고 볼 수 있잖아요.
- 이해영** 미스터리 SF. 호러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제가 호러를 쓸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영원히 ‘호러’로 불리고 있는 것 자체가 호러 아닌가요? (좌중 웃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처음 제가 이야기를 기획하고 쓸 때부터 이게 행여 ‘일제 강점기의 여고괴담’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된 포스터 말고 약 여덟 가지 정도의 일제 강점기 여고괴담 버전 포스터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대목입니다. (좌중 웃음)
- 손희정** SF와 스릴러에서의 여성 주인공, 그다음 누아르에서의 여성 주인공. 사실 저는 이해영 감독님 정도의 작품 필모와 흥행 성적을 갖고 있는 감독이 여성 서사를 만든다는 건 이후에 한국영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쓰일 부분이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서사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벡델데이 자리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 관객 1**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보면서 이주영 배우의 얼굴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주영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리고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해영** 이주영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독전>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고요.(웃음) <독전>에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캐릭터가 시나리오상에서는 농아 형제였어요. 옛날부터 팬이었던 김동영 배우를 일단 형제 중 하나로 생각을 해놓고, 사실 지금은 대스타가 된 구교환 배우를 나머지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전> 프로덕션 사무실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구교환 배우가 거기 늘 오셔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시나리오를 드렸죠.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구교환 배우님이 사무실에 봉투를 뜯지도 않은 그대로 다시 들고 왔어요. “미안한데 열어서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보면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옥섭 감독님과 같이 영화를 찍는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약속이 돼 있어 못한다고 고사를 하셨죠. 그래서 김동영 하나만 놓고 옆에 누굴 붙여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누구를 떠올려도 신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다가 <독전> 전체 오디션을 할 때 본 적 있는 이주영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진서연 배우가 연기한 ‘보령’ 역으로 오디션에 참가했었는데, 문득

백델초이스10 감독 GV

특히 이 친구가 하면 어울릴 것 같고 김동영이랑 둘이 있으면 뭔가 오누이 같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열광한 캐릭터가 되어줬고, 그래서 <유령>에서도 어떻게든 한 자리 꼭 꿰차게 만들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희정

시기상 구교환 배우가 말한 영화가 <메기>인 것 같은데요. 봉투째로 그냥 들고 온 구교환 배우의 신의 한 수가 우리로 하여금 <메기>와 이주영 모두를 만나게 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객 2

<유령>이 백델초이스로 선정돼 기쁘고, 다시 극장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감독님께 DM으로도 여쭙봤었는데 영화상에 차경의 생일과 고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난영의 생일이랑 고향은 어디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해영

네, 그분이시군요. 생일 물어보신 분. 한자도 물어보셨죠?

손희정

왜요? 자주 보시려고? (좌중 웃음)

이해영

캐릭터 각각의 이름 한자와 생일, 출생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난영이 생일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지만 난영은 왠지 제가 천칭자리라서 그런지 천칭자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가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관객 3

최근에 <유령> 블루레이 코멘터리를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배우님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한 얘기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이해영

네, 일단 코멘터리는 보통 배우들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영화를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멈추고 그냥 쭉 틀어놓고 말하는데 보통 다들 할 말이 없어서 뽀뽀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했어요. 경구 선배님도 별로 말씀을 안 하셨고 서현우 배우도 생각보다 말을 안 하고, 이하늬 배우가 중간중간 그래도 뭔가 말을 해주긴 했는데 저 혼자 너무 떠든 것 같아서 약간 배우 팬분들이 혹시 코멘트를 듣게 되면 격노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배우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다들 입을 모아 한 얘기는 어찌 되었건 우리가 <유령>이라는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어요.

손희정

다시 보시면서 ‘이 장면 기가 막히게 찍었다’ 하는 거 있었나요?

이해영

어딘들 안 그렇겠어요.(좌중 웃음) 사실은 모든 영화가 그럴 텐데 배우들이 정말 매순간 너무 열심히 해줬고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히 했고 CG팀도 컷바이컷으로 진짜 빠와 살을 갈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셨고. 그래서 모두가 정말 미친 듯이 했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영화입니다.

- 관객 4**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강옥(유리코)이 고문을 받다가 차경이 빼내주고 차로 이동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자세히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해영** 아니요. 거기는 특별한 건 없었고, 차경의 유리코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준지가 뒤늦게 달려와서 비어 있는 검은 의자를 보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블루레이 준비하면서 삭제한 신들을 모은 걸 봤거든요. 삭제한 신이면 CG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건데, 일단 많지가 않고요. 근데 거기도 다들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박해수 배우의 일본어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후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악센트를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삭제 신에 동시녹음한 일본어 대사 좀 긴 게 있는데 일본어 선생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더라고요.
- 손희정** 고문 장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유리코의 신체가 너무 수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가 유독 고문을 당하거나 신체에 어떤 가해를 당하는 설정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이해영** 처음 이야기를 구상할 때 박차경이 ‘유령’이고 유령인 그녀가 함정에 빠져 호텔이라는 공간에 갇히고, 그래서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를 하다가 자신의 또 다른 반영 같은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도 유령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하게 되는 연대의 순간이 선언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우선 세 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1. 박차경이 유령이다 2. 유리코를 만나는데 그녀도 유령이다 3. 둘이 함께 다 깨부순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었는데 그때 가운데점에 해당하는 신이 그 신이었고요.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처음에 유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의 모든 대사가 그때 바로 후루룩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대하기까지의 짧은 순간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상처를 덤덤히 내보이고 싶다,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신이었습니다.
- 손희정** 사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치, 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표현 아니냐라는 비판을 듣기도 해서 괜찮을까 우려도 되지만 여쭙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차경은 진짜 부치구나’라고 느낀 순간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체성인 사람의 감정적인 동요라고 하는 게 그 장면에서 저한테 너무 크게 왔습니다.
- 이해영**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이하늬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떤 슬픔에 대한 공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구상할 때는 그 신에 약간 섹슈얼 한 공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게 있어도 좋지 않을까, 혹은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이었던

백델초이스10 감독 GV

것 같아요. 저는 이하늬라는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읽힌다고 봤고, 오히려 그걸 제가 낮출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객 5

〈유령〉을 너무 좋아해서 스무 번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차경이 준지를 총으로 쏘는 장면입니다. 준지의 한쪽 눈을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해영

작업할 때, 특히 배우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마치 모든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장르물을 만들 때에는 너무 의미에 집착하면 재미가 없어서서 경계하는 편이라 사실 그 장면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총격 신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총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단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익숙하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곳들에 맞춰고, 박해수 배우가 연기한 카이토와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준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카이토는 가장 애매한 곳에 맞춰 뭔가 어정쩡하게, 좀 창피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광대 중간쯤을 쏘았고요. 준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한 위치면 좋겠는데 얼굴이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반을 손상시키고 한쪽은 그대로 뒀습니다. 만약 의미를 해석한다 치면 그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와 조선인의 피와 일본인의 피, 굉장히 흉하고 또 너무 부끄러운 반쪽과 멀쩡한 반을 남겨두고 싶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희정

어디에선가 욕일기 이미지라고 해석한 걸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관객 6

영화 중간중간 담배를 되게 맛있게 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감독님에게 담배란 어떤 의미인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이해영

우선 30년대를 그리면서 마치 담배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너무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대를 사는 사람들과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담배는 조금 다른데, 제가 20대였던 90년대만 해도 멋 부리려고 피우고, 세 보이려고 피우고 여러 이유로 담배를 피웠어요. 한편 30년대의 담배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놀이이기도 하고, 위안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통이기도 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최대한 풍성하게 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곧 그 시대의 질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은 80년대가 배경입니다. 거기서 여성 배우가 많이 나오고 또 이하늬 배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80년대도 사실 아기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대를 묘사한다는 측면 외에 담배에 큰 의미를 담지는 않았어요. 사실 엔딩에서 “나라 되찾으면 우리 뭘 할까?” 이런 류의 대사, 그러니까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 잔?” 같은 뭔가 되게 싱거운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 지금의 대사, “나라 되찾으면 담배나 끊을까?”를 쓰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진짜 마음을 담는 말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요.

손희정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벡델데이라고 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유령>이라는 작품으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관객 여러분들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과의 만남

백델 토크 1.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

- 모더레이터: 봉태규 배우, 이화정 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 패널: 박바라 작가, 이종필 감독, 김민정 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 일시: 2023년 9월 2일(토), 14시
- 장소: 인디스페이스

이화정	지금부터 백델 토크 첫 번째 시간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봉태규	〈슈룹〉의 박바라 작가님과 〈박하경 여행기〉의 이종필 감독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를 위해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어요. 시리즈 부문 올해 심사위원인 김민정 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드라마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각자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바라	안녕하세요. 〈슈룹〉을 쓴 박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필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경 여행기〉를 연출한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정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였다가 드라마 평론가가 된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봉태규	앞선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해주셨지만 백델리안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제일 먼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박바라	작년에 우연히 백델데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백델리안들을 보고 ‘되게 쟁쟁하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받고 ‘진짜 내가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보다 화력 ¹ 이를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아까 상패를 받으면서는 작업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패를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평생 간직하시죠.(웃음)
이종필	네, 저는 상패를 이미 하나 갖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으로 백델초이스10에 선정됐고, 또 박은경 대표님이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준비할 때부터 백델테스트를 알고 있었고 또 상을 받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하경 여행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을 때 뜻밖이었어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여성 서사를 의식하고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박하경 여행기〉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작업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뜻밖이지만 상을 받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 〈슈룹〉의 주인공인 중전 임화령을 말한다. 배우 김혜수가 연기했다.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과의 만남

- 봉태규**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델리안 감독상을 수상하신 거잖아요.
- 이화정** 심사를 할 때도 <박하경 여행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이었습니다.
- 김민정** 네.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여러 작품들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일단 작품 수가 워낙 많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화평론가에 비하면 드라마 평론가는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영화는 2시간가량인 데 반해 드라마는 다들 아시듯 감상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을 섞어 “시력을 헌납하고 드라마 평론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박하경 여행기>와 <슈룹>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장일치로 선정된 작품들입니다.
- 이화정** 4회에 걸쳐 백델데이를 해오며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오히려 ‘차별’로 오인되는 경우가 간혹 벌어졌어요. 이러한 역전이 왜 일어나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성별 인식에 있어 매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백델리안 수상을 마냥 기뻐할 수 있는지,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 때 오히려 공격을 받지 않을까 위축되지는 않는지 걱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백델리안이 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바라** 창작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우려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평등을 차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성평등과 성차별은 다른 것이라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저는 남녀 성별에 무관하게 캐릭터 둘 다에 매력과 특별한 능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 이종필** 백델데이의 취지에 동의하고 성평등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에 특별히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균형’에 대한 고민이 더 생기는데요. 사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다음에 <박하경 여행기>가 공개되었지만 제가 그 중간에 <탈주>라는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를 했어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으로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받고 백델초이스에 꼽혔을 때 이미 <탈주>를 준비하고 있었어 저도 모르게 이상한 죄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랬는데요.(좌중 웃음) 물론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그다음에 <박하경 여행기>를 연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백델리안 감독상까지 받고 보니 마음속에서 이것을 유지해야겠다, 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혹은 계속 여성 서사를 꾸준히 고민하고 작업해야겠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이화정**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좀 구속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웃음)
- 봉태규** 저도 연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해에 걸쳐 백델데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했던 작품 속 제 캐릭터들을 떠올려보면...(좌중 웃음)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는 DM도 많이 받고요.(웃음) 그런데 사실 배우는 캐스팅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필 감독님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기도 함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니다. 그리고 저희가 벡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으로 ‘나에게 벡델데이는 000다’하는 굉장히 고지식한 정의를 받고 있어요.(좌중 웃음)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클래식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화정 그렇죠. 레거시, 전통을 만들어 가야죠.(웃음)

봉태규 올해 벡델리안 분들은 어떻게 정의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벡델데이는 어떤 의미인지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박바라 나에게 벡델데이는 ‘시소’다. 놀이터에 가면 무게가 비슷해야 탈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시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네나 미끄럼틀은 혼자서도 재미있게 탈 수 있지만 시소는 무게가 비슷해야 재미있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벡델데이는 시소처럼 느껴집니다.

봉태규 박바라 작가님이 너무나 멋진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감독님 답변에 더욱 기대가 큼니다.(웃음)

이종필 저는 그냥 단순하게, 벡델데이는 저한테 ‘블루리본’ 같은 게 아닐까 싶네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볼 수 있는 표식.

이화정 만약 벡델데이 가훈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시소’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블루리본’이라고 표현하시니 꼭 벡델데이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곳이 ‘맛집’이라는 말이잖아요.(웃음)

봉태규 그리고 누군가 인정을 해주는, 공식적으로 태그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그렇다면 내년에도 벡델데이 한 줄 정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오늘 토크 주제는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로 잡아봤는데요. 지난 한 해 나온 시리즈물들을 꼭 살펴봤을 때 우선 장르가 정말 다양합니다. 액션, 스릴러, 정치 드라마, SF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묘하게 장르의 문법을 배반하거나 변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벡델초이스10 선정작 중에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그간 폭력의 피해자로 주로 그려지던 여성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결을 부여했고, <퀸메이커>도 남성 정치물이라는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여성 연대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하경 여행기>는 기존 로드 무비와는 사뭇 다른 호흡의 무해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슈룹>도 궁중 암투라는 사극의 전형적인 틀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각색하고 있죠. 시리즈가 장르를 변주해 또 다른 창작을 해나가는 현재의 상황을 김민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민정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부담스럽네요.(웃음) 사실 영화와 달리 시리즈에서는 벡델테스트가 과연 유의미한가 할 정도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작품이 많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또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소수자성을 갖고 있거나 보다 너른 형태의 다양성을 재현하는 드라마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장르를 활용하고 변주하는 듯합니다.

이화정 사실 플랫폼이 콘텐츠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OTT 플랫폼 작품의 경우 체감상 굉장히 자극적이고 빠른 템포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종필 감독님께서 앞서 〈박하경 여행기〉의 수상을 상당히 의아해하셨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는 오히려 〈박하경 여행기〉가 이런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난 길을 선택한 부분이 의미하다는 평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함께한 김민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정 OTT 플랫폼이 확장하며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단계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 더욱 놀라운 단계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콘텐츠 자체의 분량을 시청자 혹은 소비자들이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을 때, 즉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을 때는 그래도 콘텐츠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배속으로 관람하는 이들이 거의 없죠. 흔히 ‘젠지 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1.5배속, 2배속으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자체가 사람마다 모두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화정 콘텐츠가 사용자의 페이스에 맞게 재정의되는군요.

김민정 네. 예를 들면 시리즈 같은 경우 짧게는 6부, 8부로 구성되고 10부, 12부, 16부, 20부 등 다양합니다. 또 시즌제로 가면 좀 더 길어지고요. 이렇게 한 이야기가 너무 길다 보니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보는 이들도 꽤 많아요. 전체 이야기는 길지만 요약본으로 주요 장면을 소비하는 층이 많아질 경우 콘텐츠가 자극적이게 될 확률이 크죠. 그런 점에서 이 흐름을 거스르는 작품이 바로 〈박하경 여행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 리뷰를 보니 〈박하경 여행기〉를 힐링 드라마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정의가 이 드라마의 매력을 조금 반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힐링은 뭔가 폭신폭신하고 조금 몽글몽글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박하경 여행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힐링을 보여주거든요. 일례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에서 박하경은 템플스테이를 위해 절에 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돌탑을 보죠. 다수의 사람이 돌탑에 정성스레 돌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반면 박하경은 그 앞에서 ‘발로 차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통찰, 인사이트를 느꼈습니다. 사실 템플스테이는 뭔가를 비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는 돌탑 정상 자리에 내 돌을 올리길 바라고 또 언제나 소원을 빕니다. 이걸 무너뜨리길 바라는 박하경을 보며 저는 이게 힐링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보내는 박하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감독님의 표정을 보니 전혀 아닌 것 같네요.(웃음)

이종필 아니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좌중 웃음)

봉태규 저도 여기 약간 동의하는 게, 힐링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나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주가 되는 반면 〈박하경 여행기〉속 박하경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행동에 뚜렷한 목표도 목적도 없죠. 저는 사실 어떠한 삶에 있어서 침을 찾는다는 건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비워지고 새로운 게 채워지는 듯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한데 그런 지점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기존 문법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작품보다 힐링 드라마에 가깝고요.

이종필

저도 모르던 부분이지만 지금 깨닫는 게 많네요.(웃음)

봉태규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포장이 이뤄지고 있는 듯하네요.(웃음) 저 역시 작품을 보면 자연스레 캐릭터의 성별 특징을 가늠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들의 면면이 더 강렬하고 세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여성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어떤 캐릭터 경향을 갖게 됐는지, 최근 캐릭터 구성과 묘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바라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청자, 혹은 관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보지 않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캐릭터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40대 여성인 저조차도 소위 말하는 ‘고구마 구간’²이나, 여성 주인공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내용 같은 걸 보면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깨부수지 왜 저러고 있어?’ 하는 생각이 막 들고.(웃음) 로맨틱 코미디든 오피스물이든 어떤 장르에서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있고, 시청자들이 실제 살아가는 현실도 그러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이를 거울처럼 비추는 듯합니다. 저는 어쨌든 시청자가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 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시나리오 작법서가 생각나는데요. 여성 캐릭터를 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여성 캐릭터는 명랑 소녀 혹은 섹스 심볼뿐이라는 거죠. 긴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서 남성 중심으로 서사가 이어질 때 나온 책일 텐데요. 저는 이런 구분은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때때로 ‘안 명랑’한 캐릭터를 일부러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도식으로 캐릭터를 만들 순 없고, 결국 캐릭터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캐릭터들이 정형화되고 단순화된 것도 이들이 극 안에서 맺는 관계라는 것이 별것 없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남성 캐릭터가 있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혹은 좋아했던 여자 혹은 좋아하고 싶은 여자밖에 없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남성 캐릭터와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남성 캐릭터가 없더라도 주체적으로 그려지는 캐릭터들이 많죠. 그래서 여성 캐릭터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형태의 삶을 다양하게 드러내며 살 뿐이죠.

이화정

규정을 내리는 시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규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여자, 좋아했던 여자, 좋아하고 싶은 여자로 생각하면 여성 캐릭터가 귀엽거나 팜프파탈처럼 섹시하다는 판타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서사들은 이 견고했던 판타지를 깨는 작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가진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젠지 세대

2 드라마 전개가 느리거나 캐릭터 성격이 무뎠을 경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김민정 교수님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정

저는 중앙대 문예창작전공 학부에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스토리를 기획하고 창작 비평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점은 흔히 ‘PC(political correctness) 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경우,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콘텐츠에만 엄격한 평가 잣대가 됐다면 이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인생작’인 반면 젠지 세대에서는 캐릭터 설정 때문에 뜨거운 논쟁을 낳으며 호불호가 많이 갈린 게 사실입니다. 반면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에선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거기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평가 잣대나 창작의 기준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최근 몇 년을 살펴보니 이 분야도 서서히 비슷해지는 면이 있어요. 가령 최근 인기작 중 하나가 웹소설이자 웹툰인 〈재혼 황후〉라는 작품인데, 재혼하는 황후 이야기를 다루면서 미러링 수준을 넘어 뭔가 시스템들을 환기하고 성찰하는 지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봉태규

가장 달라진 건 의견의 다양성 같아요. 〈나의 아저씨〉가 나왔을 때 캐릭터 설정 때문에 비판이 많았고, 단지 이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 하나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다른 의견은 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난 이게 싫더라, 혹은 난 이게 좋더라와 같은 얘기를 좀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예술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창작자 입장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도 기존의 재현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며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바라

우선 저는 〈슈룹〉에서 ‘중전’의 스테레오 타입을 깨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다수의 사극을 생각하면 중전은 대부분 보료에 앉아 아랫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무엇을 할지 지시를 하는 편인데요. 그걸 깨고 싶었기에 극 중 중전인 임화령을 거의 앉아 있지 않고 항상 뛰어다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렸어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시청자가 “중전이 왜 저래”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조선 초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임금이 없을 때 직접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한 중전에 관한 기록이 있고, 전쟁에 나가는 걸 결정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갑옷을 입혀 전쟁에 내보내면서 본인이 왕비가 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화령이를 이 정도로는 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과감하게 틀을 깨서 썼던 기억이 있네요.

이종필

저는 스태프들, 특히 여성 스태프들 의견을 잘 듣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박하경 여행기〉 3화에 이나영 배우와 구교환 배우가 영화제 야외 상영장으로 가는 길에 재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원래는 부산에 뷰가 괜찮은 방파제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방파제가 없어져서 지하

시리즈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철로 장소를 급히 바꿨어요. 이 신의 경우 실제 대본에서는 이나영 배우를 알아본 구교환 배우가 뒤쪽에서 다가와 말을 거는 건데, 스크립터 친구가 그 장면이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헌팅하고 준비를 할 때 실제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무섭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쪽에서 다가오는 것으로 바꿔 촬영했습니다. 남성으로서 제가 뭘 모른다고보다 어떤 부분은 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내가 둔한 것 같다는 측은 있는데,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봉태규

사실 저도 요즘 세대가 아니다 보니 사고하는 데 있어 굉장히 굳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저랑 결혼하신 분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를 때에는 물어봐야 돼요.

이화정

특히나 두려움 같은 건 동물적인 감각일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받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어떤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태규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인 공포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각 작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OTT 환경을 보면 장르적인 요소가 강하다든가, 남성 위주의 캐릭터들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종필 감독님은 그런 환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작품을 만드셨어요. 도심을 벗어나 자신만의 호흡을 찾아가는 여성 로드무비인 <박하경 여행기>는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며 확고한 팬층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의 OTT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이종필

굳이 <박하경 여행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뭐든 투자를 받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물론 <박하경 여행기>도 투자받는 게 쉽지 않아서 보통 감독이 하지 않는, 투자자를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더럼프 박은경 제작자와는 오래 작업해 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작자님이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같이 다니면서 앵벌이 하듯이 “저희 투자해 주세요.”하고 다녔었고. 그때 “다 좋은데 뭐가 없지 않냐, 무슨 마스다 미리의 만화처럼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속으론 ‘마스다 미리는 엄청 훌륭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생각했지만. (좌중 웃음) 그렇게 앵벌이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유일하게 웨이브만이 그 소리를 들어주셨죠.

이화정

사실 감독님의 전작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흥행 스코어로 확인된 측면도 있지만 여성들이 진취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하경 여행기> 앞에서 지갑을 닫으셨군요.(웃음) 사실 감독님은 전작 <도리화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여성 작가나 감독들이 많이 개발할 법한 소재, 캐릭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종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서사를 연달아 작업하게 된 건 제 의지라기보다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이런 여성 서사를 하겠다’ 하는 제작자 혹은 작가님들을 만나 운 좋게 하게 된 측면이 크죠. 다만 막연하게는 멋진 여성 캐릭터에 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포 선라이즈>를 보고 줄리 델피가 연기한 ‘셀린느’라는 캐릭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멜로영화로서의 재미도 있었지만 어떤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건 그 영화에서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보통 많은 경우 여성 캐릭터는 플롯에 종속되거나 혹은 그냥 쉬어갈 때, 혹은 다른 b 플롯으로 움직이게 마련인데,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가상의 인물이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를 본 후로 막연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 이화정**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캐릭터였죠. 이종필 감독님이 1995년을 <비포 선라이즈>로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김민정 교수님도 2023년 <박하경 여행기>의 위치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
- 김민정** <박하경 여행기>는 한마디로 ‘박하경이다.’ 왜냐하면 제가 <박하경 여행기>를 여러 곳에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요. 비평가다 보니 심오한 평을 기대하시기 마련인데, 아마 <박하경 여행기>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박하경 스타일은 박하경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날로 먹고 있죠? (좌중 웃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이래도 투자를 받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저도 정말 웨이브에 감사드립니다.
- 봉태규** 김민정 평론가님의 평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다른 말을 덧붙이기가 조심스러운 콘텐츠예요. 왜냐면 그 말 때문에 <박하경 여행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웃음)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을 보면 사실 남성 서사에서 흔히 봐온 장르 법칙을 가져오되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제 앞서 소개한 것 중에 선거전 암투를 통해 정치사회를 해부한 작품이죠 <퀸메이커>, 그리고 <슈룹>은 퓨전 사극이라는 형식으로 궁중 암투라는 굉장히 오래된 서사 틀을 사용하면서도 그 전형성을 깨는 시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 캐릭터가 주축이 된 궁중 암투라는 형식을 통해서 작가님이 목표하신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박바라** 우선 제가 집필을 하면서 목표했던 지점은 권력을 가진 여자가 그 권력을 제대로 쓰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반칙을 쓰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부딪히는 인물, 그와 동시에 자신의 우산(슈룹) 아래 자식과 지아비, 백성, 약자들을 균등하게 품을 수 있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종전이 가장 높은 계급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권력을 제대로 쓰는 여성을 보여주고 싶었죠.

시리즈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봉태규

〈슈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하 사극은 아니지만 기존 OTT에서 방영되고 있는 8부작, 12부작의 작품이 아니라 16부작이라는 기존 방송국 드라마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긴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OTT에 비해서 종합편성채널이나 공중파는 회당 시간도 길고요. 심사과정에서 작가님에 대해 “신인임에도 극을 이어가는 호흡과 변주가 놀랍다”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 인터뷰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찜질방과 대중교통을 꼽으셨다고 해요. 〈슈룹〉을 쓰면서 거친 창작의 노력을 혹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바라

사극이기 때문에 논문도 봐야 하고 책도 봐야 하고 자료도 봐야 하지만, 저는 〈슈룹〉을 쓸 때 밖으로 좀 많이 나갔어요. 특히 지하철은 사람을 마주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인물 관찰에 좋고, 찜질방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상상을 나래를 펼칠 수 있죠. 예를 들어 강남 학원가의 뒷배경을 조선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배경을 종학으로 바꾸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를 가마로 바꿔보고, 거기에서 대신 대기하는 알바생들을 내시로 바꿔보는 식으로. 그리고 찜질방에서 만난 귀엽게 말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태소형 같은 캐릭터로 만들어 엄마로 앉혀보고.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처럼 작업했어요. 사실 틀은 사극이지만 현재에서 많은 요소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극 중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 않고 움직임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화정

김민정 교수님, 기존 사극 장르에서 벗어나 〈슈룹〉이 가진 성취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정

〈슈룹〉은 사교육 열풍을 다루고 있다 보니 ‘조선판 스카이 캐슬’이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궁중 암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지점에서 ‘낯설게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슈룹〉에서는 왕자들이 어머니의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계급이 또 한 번 나뉘어요. 한마디로 금수저도 14K가 있고 18K가 따로 있는 거죠. 사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갑을’로 이루어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그리는 데 이 갑 안에서 또 다시 갑과 을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심 대립 구도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대비, 왕의 엄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부인, 중전이에요. 그런데 두 인물이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태생적으로 갑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대비는 원래 후궁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인 서자를 왕까지 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중전은 집안 좋은 이들을 물리치고 중전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한마디로 ‘갑이 된 성공한 을’인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드라마는 사적 복수를 통해 갑과 을을 전복시키는 다크 히어로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통쾌하기는 한데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면 〈슈룹〉은 ‘과연 을이 성공해서 갑이 되었을 때 이상적인 갑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임화령을 통해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슈룹〉은 우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봉태규** <스카이 캐슬>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입이 안 되는 지점이 있죠. 이들이 너무 상류 사회에 속해 있어서. 그런데 <슈룹>은 어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최고 상류 사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정 이입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했고요. 김민정 교수님이 말한 다양한 층위의 갑을 관계 묘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화정** ‘<박하경 여행기>는 박하경이다. <슈룹>은 우리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겨 보겠습니다.
- 관객 1** 저는 두 작품 모두 재밌게 봐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성 서사와 캐릭터가 늘어난 건 맞지만 상당수가 여성의 욕망을 표독스럽게 그린다거나, 일그러진 부분을 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도 큼니다. 상대적으로 <슈룹>은 자기 아들이 잘되게 하려는 억척 엄마이지만 마지막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인물을 그리고, <박하경 여행기>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도 결국에는 정의롭고 바른 선택을 한다는 면에서 더욱 좋았는데요. 현재 만들어지는 다수의 콘텐츠가 여성의 욕망을 대상화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20대 여성 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체로 ‘회사 다니기 너무 싫다.’는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좌중 웃음)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명쾌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은 되게 복잡했어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강한 욕망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욕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캐릭터들이 다양한 욕망을 표현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욕망의 언저리를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모호한 답변을 드립니다.
- 박바라** 저도 답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튼 욕망이라는 건 뭔가를 갈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속 인물이라면 무엇이 됐든 초목표³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독’이라는 표현이 세계 보이긴 하는데요. 어떠한 욕망을 가졌든 자신이 욕망한 바를 쟁취하려는 인물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수위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는 강한 여성을 그리고 싶습니다.
- 관객 2**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작품은 사실 <퀸메이커>입니다. 제가 10년여 전에 정치 선거판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건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요 인물은 모르겠지만 주변부 인물까지 거의 대부분을 여성으로 그린 것이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민정**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 캐릭터의 경우 영화에서는 종종 재현됐지만 드라마에서는 장애인 주인공이 전무했다고 볼 만큼 없었죠.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왔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인식이 생

3 배우가 행위로서 지향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리즈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생겨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비가시화된 인물들을 가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표독스러운 여성 재현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반대로 과거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표독스러운, 어떠한 전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욕망이 자주 재현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독기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또 핑크색과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려면 누적된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재현 방식이 우려되는 동시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화정

네. 어떻게 보면 과도기일 수도 있고 성장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바라

저도 <퀸메이커>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요즘 어디든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야까 벅델데이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며 ‘시소’라고 했을 때 남성 서사와 여성 서사가 동일한 비중으로 힘을 나눠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더라도 여성이 주도하는 서사이기에 어색하진 않았는데요. 물론 불편하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3

저는 번아웃이 왔을 때 <박하경 여행기>를 봤는데 너무 힘이 돼서 다섯 번을 봤어요. 이종필 감독님 혹시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그리고 하경이와 친구 이야기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못 보여준 설정이라거나 삭제된 설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인데 드라마를 쓸 때 긴장되고 무서운 게 작품 안에는 작가의 신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쓰고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이 주장에 대한 용기가 과연 내게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처럼요.(좌중 웃음) 작가님께서 혹시 어떻게 용기를 가지시는지, 어떤 마인드로 작품을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종필

우선 <박하경 여행기>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도 번아웃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에 남자들 나오는 액션영화를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좌중 웃음) 빨리 끝내고 박하경과 함께 떠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촬영했고 작업했고 편집했고 후반작업하면서 정말로 제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솔직히 진짜 다 필요 없거든요. 저만 행복하면 돼서.(좌중 웃음)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인데 다섯 번이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덟 개 에피소드 다 좋아하는데요. 굳이 꼽자면 여덟 번째, 심은경 배우랑 나왔던 화가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저희가 되게 빠빠한 일정으로 찍어서 어디서 더 쓸 거 없나 할 정도라 컷을 뺀 건 없고요.(웃음) 다만 <박하경 여행기>는 4화까지 대본이 나오고 그 뒤는 촬영과 맞물려 좀 급하게 작업을 했는데, 작가님처럼 같이 쓰면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했어요. 극 중에서 심은경 배우가 죽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죽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썼다가 지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박하경이 친구가 곧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대사, 상황들, 이런 것도 올면서 써보기도 했어요. 창작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어떤 선을 넘어갈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안에 ‘제 것’을 넣고 싶어하

박바라

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오래전 죽은 소중한 친구가 생각나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 지금처럼 약간은 비어 있는 구조가 좋겠다고 결정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꿈이라고 하시니까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공격을 받는 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해 크게 개의치는 않고, 만약 그 공격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작가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힘으로 쓰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글을 쓸 때 늘 ‘조금 유연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초 안에 심이 있고 초 모양에 따라 불꽃이 휘기도 하지만 결국은 중심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가 본인이 쓰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살짝 변형은 될지언정 초심에 불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봉태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백델데이 행사에 참여한 것 혹은 백델리안 수상이 본인이나 주변에 계신 창작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

저는 마치 제가 수상한 것처럼 너무 기뻐요. 마치 생일 같아요.(웃음) 제가 대기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드라마만 보다가 드라마 스크린을 흔히 말하면 찢고 나온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 시력을 좀 더 헌납하더라도 앞으로도 유심히 드라마를 보고 좋은 작품은 열심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박바라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 2024 백델리안은 누가 될까 생각하며, 백델테스트를 체크하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 상을 받은 만큼 성평등을 균등하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화정

말이 글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 감독님께서도 대본을 쓰시는데요. 백델데이에 서 여러 번 수상을 하면서 이후 작품으로 또 수상을 노려보시는 거죠?

이종필

아니요. 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감독상 후보에 올랐을 때도 속으로 ‘제발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빈 사람입니다. 물론 아니었고, 작품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었는데요.(좌중 웃음) 저는 오늘 수상 소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상을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로 감독이라는 직업이 뭘 하긴 하는데 좀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숨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청룡이고 칸이고 다 감독상 이런 거 진짜 받고 싶지 않고, 백델리안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이게 유일한 감독상이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래서 칸을 받든 말든 그런 동료 혹은 선배 감독들을 만나면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고, 오히려 ‘백델리안 감독상은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을 받았으니 이 취지에 맞게 앞으로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사회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에 일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뭉클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벡델리안 배우상을 받고 싶으신 봉태규 배우님께 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태규

상 그런 건 욕심이 많이 없고요. 그냥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참여한 작품이 벡델데이에서도 호명되는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단편영화를 하나 찍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독님이 현재 만삭이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연출을 하시고 편집까지 마무리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드물다 보니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벡델데이가 그런 점에서 사회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정

봉태규 배우님도 벡델데이의 영원한 사회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분들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패널들, 귀한 휴일에 벡델데이에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같이 웃고 박수쳐 주신 관객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행사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벡델 토크 2.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모더레이터: 남궁선 감독, 이화정 벡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 패널: 김세인 감독, 변성현 감독, 정주리 감독
- 일시: 2023년 9월 2일(토), 16시
- 장소: 인디스페이스

- 이화정** 벡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두 번째 벡델 토크는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궁선**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남궁선입니다. 지난해 제 영화 <십개월의 미래>가 벡델초이스10으로 선정돼 관객과 만났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벡델리안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벡델데이가 사실은 팬데믹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관객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뜻 깊게 다가옵니다.
- 이화정** 작년만 해도 영화 상영 후에 관객과 마주 앉아 토크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기도 했고, 행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사전신청 호응을 보면서 벡델데이의 영향력이 커졌다, 좀 더 확장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에 행사를 마련하고 관객 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벡델초이스10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상영하겠다는 요청을 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 초청돼 벡델데이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에도 남궁선 감독님이 같이 가셨잖아요. 감독님 인생에 벡델데이란 무엇인가요?
- 남궁선** 벡델데이는 저에게 아주 뜻 깊은 트로피를 받은 날이고요. 또 제 영화는 사실 팬데믹 때 개봉을 해서 관객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벡델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객 분들과 만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화정** 벡델데이가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여러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올해는 특히 시리즈 부문에서도 확장을 했는데요. 시리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호명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자리에 함께한 벡델리안들에게도 벡델데이가 다양한 기회를 열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벡델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김세인 감독,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길복순>을 연출하신 변성현 감독님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 김세인** 안녕하세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쓰고 연출한 김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주리** <다음 소희>를 쓰고 연출한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성현	〈길복순〉을 쓰고 연출한 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정	변성현 감독님께서는 깜짝 출연 같은 자리인데요.
변성현	네. 잠결에 이진희 대표님 전화를 받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대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상만 받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화정	당황스럽고 좀 무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벡델리안 선정 소식을 처음 전해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세인	저는 벡델리안 작가상 선정 소식 전에 이제 벡델초이스10에 뽑혔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여자들이 다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여성 혐오 영화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벡델초이스, 또 벡델리안으로 선정이 된 게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가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걸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명예롭고 좋았습니다.
정주리	저는 연락을 받고 “여자들만 나오니까 주시는군요.”라고 거의 자동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이후 테스트 항목들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 테스트 항목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만약 여성의 자리에 남성을 넣어 보면 어떤지 다시 생각해 봤더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게 정말 당연하게 될 때까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화정	변성현 감독님 연출작들을 보면 벡델테스트를 통과하는 작품도 아닌 작품도 섞여 있는데요. 〈길복순〉으로 벡델초이스10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셨나요.
변성현	이 소식도 이진희 대표님 카카오톡 메시지로 들었는데요. 처음 듣고 ‘이게 선정돼도 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영화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이제 약간 어떤 의무감 같은 걸 가져야 하나, 좀 깨어 있는 감독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화정	벡델리안으로 선정된다는 건 성평등을 위한 어떤 ‘호명’이기도 하잖아요. 앞서 의무감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벡델리안이라는 이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세인	저는 일상이 백래시여서 그런 것이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한정했을 때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말하는 걸 떨려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정주리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별다른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영화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 변성현** 두려움은 없고 현재로선 제 영화가 벡델초이스10에 들어가게 된 게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 남궁선** 답변을 들어보니 사실 그런 걸 겁내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걱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해 저도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러볼까 해요. 저는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했던 질문인데 ‘나에게 벡델데이는 OO이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 김세인** ‘나에게 벡델데이는 참 고마운 친구다.’ 사실은 일상에서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순간들과 마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특별하게 이야기돼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벡델데이가 생기면서 친구와 관련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다른 긴 얘기 필요 없이 “벡델데이 봤어?” 하는 정도로 얘기를 갈음하고, 친구와는 오히려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된 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벡델데이 역시 제게는 고마운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화정** 사실 벡델데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때가 있죠. 그래도 4회를 맞은 지금은 전년도에 호명되신 분들이, 그리고 그 전에 호명되신 분들이 수를 좀 불리면서 더 크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감독님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 기쁘네요.
- 정주리** 저는 처음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하면 “눈이 조금 가려운 줄 알고 비벼 더니 눈이 확 뜨인 그런 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다가 막상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니 진짜 다르구나 하고 느꼈던, 그리고 이 생각을 한동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변성현** 나에게 벡델데이는 “잠을 깨우는 전화”다.(좌중 웃음) 이번을 기회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영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화정** 변성현 감독님 같은 경우 이진희 대표님과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도 같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벡델테스트 조항에 통과가 안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길복순>은 벡델데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 감독의 작품 안에서 굉장한 변화가 읽혀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창작 단계에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성 서사를 만들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신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성현** 여성 서사를 해야겠다는 의무감보다는 전도연이라는 배우와 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전도연 선배님은 제가 남녀 모두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배우여서 사실은 선배님과 술자리에서 출연 약속을 받아놓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르를 먼저 정했죠. 그동안 전도연 배우가 제일 안 해봤었던 게 뭘까 하는 생각에서 액션으로 정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연 배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캐릭터들이 주변에 몰리게 되더라고요.

- 이화정** 모든 성별을 초월한 전도연이란 슈퍼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남궁선** 저는 이 자리에 변성현 감독님이 계신 게 너무 뜻 깊은 것 같아요. 여성 서사를 하게 된 이유도 ‘내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저도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성별 특징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이번 백델데이 후보작들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여성 캐릭터가 지난해보다도 더 다채롭고 강렬하고 세졌다는 거였어요. 오늘 주제가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었거든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다음 소희>에서는 죽거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와 <길복순>은 단순히 정리해 나쁜 캐릭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여성 캐릭터가 주제가 되면서 저희가 많이 봐오던 남성 중심 서사에서 흔히 평면적으로 그려지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 면모들이 보여지게 됐는지, 창작 과정에서 어떤 접근법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정주리**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꼭 듣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결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때,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했다고보다 저 같은 경우 ‘소희’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또 이후에 등장하는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영화에서 새롭게 부임한 두 번째 팀장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유진이 만나게 되는 교육청 장학사 캐릭터를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남성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캐릭터들을 여성으로 바꿔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더니 그 캐릭터들을 만드는 게 더 신이 나고 재미있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냥 남성 캐릭터로 남았다면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떤 전형적인, 혹은 부정적인 캐릭터가 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화정**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현실에 뒤처져 반응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 변영주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나리오를 쓰다가 의사나 변호사 캐릭터는 나도 모르게 남성을 상정하고 만들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도 영화는 전형성에 사로잡혀 있는 게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의미에서 정주리 감독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 것 같네요.
- 김세인** 사실 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캐릭터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주변에 많이 있는데 계속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와 캐릭터를 내가 아는 방식에서, 그렇지만 또 새롭게 그려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 변성현** ‘길복순’이라는 캐릭터는 전도연 선배님한테서 영감을 많이 받은 캐릭터이지만 그보다 이야기에 더 신경을 썼는데요. 영화에 모녀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 킬러 이야기일 때 보통 엔딩으로 향하는, 마지막 결투를 행하러 가는 동력이 주로 모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꼭 제거하고 싶었어요. 사실 길복순은 마지막 결투에 나설 때 딸을 집에 두고 가거든요. 딸을 지키기 위해

영화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서가 아니라 자기 ‘곤조’를 지키기 위해서 딸이 자는데 그냥 나와버리는 엄마죠. 그다음에 저는 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딸과 엄마의 성장영화’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딸이 엄마에게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비슷한 어떤 면을 보면서 문을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며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는 그냥 도연 선배님을 땀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라면’이라는 상상하에 킬러를 배우라는 직업으로 치환해 생각하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정

지난 한 해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웠고, 이걸 어찌 보면 조금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 분이 연출과 동시에 시나리오도 쓰고 계시는데, 소수를 차지하던 여성들이 이야기의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본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보면서 최근 어떤 것들이 새롭게, 혹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세인

작년 벡델초이스에서 선정된 작품들도 그렇고 저와 동년배 감독들이 모녀에 대한, 특히 그중에서도 중년 여성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려낸 영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문학계 특히 소설 쪽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나만 느끼는 걸증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새로운 모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한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정주리

저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두 사람과 <길복순>의 길복순과 영지. 이 캐릭터들이 너무 좋았어요. 신도 나고, 진짜 그 놈의 지긋지긋한 모성, 때려 치고 싶은 그것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배우 분들도 정말 너무 대단했구요.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니라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계>가 너무 재밌고 좋지만, 한편으로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는데 <길복순>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잠깐 트레일러를 봤는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크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아합니다.

이화정

정주리 감독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계>가 큰 호응을 얻었지만 너무 남성 중심적이라는 공격을 받거나 하진 않았나요.

변성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계>와 <킹메이커> 같은 경우 누군가가 저에게 “알탕 영화만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데에 크게 구애받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길복순>을 했다고 해서 ‘다음 영화도 반드시 여성 캐릭터들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저도 두 감독님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약간 판타지 같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런 캐릭터나 영화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독립영화계에서는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는 반면 ‘상업영화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선

갈증이 있는 만큼 만들어지면 또 그 갈증 해소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달려들 텐데요. 한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언급되는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현실적인 여성들인데 이게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세고 특이한 캐릭터로 보이게 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새롭다, 신선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스크린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고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직접 만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벅델초이스10으로 선정된 영화들을 보는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상업영화 안에서는 아직도 구현하기 힘든 캐릭터나 서사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생소하다고 생각하거나 굉장한 도전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 작품들을 만들어내신 게 정말 큰 도전이고,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각 작품은 어떤 고민들을 하며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의 사회는 콜센터의 현장 실습생이죠. 사회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인권이 유린된 우리 사회 구조를 면밀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영화 구조가 사회가 자살을 한 이후에 형사 유진이 사회의 행적을 뒤따르는 형태를 취해요. 두 주인공이 만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소외된 청년,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여성 간 연대를 조금은 떨어뜨려서 보여주는 구성을 취한 이유를 여쭙보도록 할게요. 직접적인 만남이라기보다 감정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주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알게 된 것도 영화 형식에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엄연한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영화를 만든 큰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서 죽음 자체를 다루고, 유진이라는 인물과 함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다뤄야만 온전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커다랗게 영화 전체를 보면 중간을 기점으로 거울처럼 마주하게 되는 형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그랬을 때 정작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진이 마치 사회를 들여다보고, 사회도 마지막에 핸드폰에 영상을 남김으로써 유진을 마주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관객 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화정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우리한테 와닿았을 때는 확장성을 갖는 구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궁선

영화를 보면서 유진에게서 이 실화를 취재하는 감독님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미 죽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뒤늦게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변성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판타지적 형사물이랄까, 장르의 어떤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시체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유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봤을

영화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이 죽음의 범인, 살인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는 인물로 그려진 것 같았고, 전작인 <도희야>에서도 사실 폭력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여아를 보호하는 어른을 그리셨잖아요. 그 캐릭터도 <다음 소희>의 유진도 저희가 전사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 구조 안에서 상처를 받은 느낌이 있던 말이에요. <도희야>의 인물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뭔가 노력하는 모습, 어떤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여성 캐릭터들을 연달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정주리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영화에 나오니까 굉장히 정의로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하면 그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도희야>의 영남도 그렇고.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의감이 넘치는 형사나 경찰이라면 훨씬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모른 척을 해보려다 마지 못해서 하게 되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인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어쨌건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는, 어쩌면 외면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어떤 바람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끝내는 그게 좀 설득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화정

<다음 소희>를 보고 ‘내가 왜 그들을 미쳐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귀를 열고 멀리 보면서 우리 주위를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반대로 이 작품의 두 인물은 현실에서 알게 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할 이들이죠.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얘기입니다.(웃음)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서로를 싫어하는 이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의 모녀 관계, 가족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온정 같은 걸 산산이 깨부셨어요. 여성 캐릭터를 창작할 때 항상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나쁘게 그려질 때는 팜프 파탈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장르적 관습 모두를 따르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출현했다는 생각을 했고, 현실에서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지만 제멋대로인 이들이 무척 반가웠어요. 쓰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밀어붙여 이런 캐릭터를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세인

앞서 얘기했던 것과도 이어지는데 제가 그런 캐릭터를 보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인물을 쓸 때 제가 그 인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기 검열이 심한 편인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욕망으로만 움직이는 인물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시간 동안 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수경이나 이정이 나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닌데요. 만약 일상에서 만났다면 그냥 ‘시끄러운 아줌마’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렇게만 납작하게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정, 고독 혹은 외로움 등의 갖가지 감정들의 선명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시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되고 움직이고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화정

아까 정주리 감독님이 벅델데이가 눈을 이렇게 비볐을 때 눈이 떠지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창작 단계에서도 그간 뭉뚱그려서 봤던 캐릭터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들이 더해졌을 때 이런 독보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진 거군요.

남궁선

저도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수경이 굉장한 악인같이 느껴지는 동시에 너무 매력적이기도 한 거예요. “끝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모성 이야기가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 하는 식으로 둘로 나눠 바라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보면 수경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입체적인 인물이지요. 매번 어떤 기대를 배반하는 전개가 이어져 깜짝깜짝 놀라며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연출한 <십개월의 미래>도 ‘미래’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임신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스테레오 타입의 모성과 마주하면서 자아가 뒤틀리는 듯한 경험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수경은 딸의 고통과 상관없이 자기 몸에 난 제왕절개 상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엄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혹은 있어 왔지만 스크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경으로 살아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캐릭터에 입입이 잘 되던가요? (웃음)

김세인

입입은 됐는데, 수경이든 이정이든 저는 타인의 마음을 백 퍼센트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녀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많이 입입을 하면서 썼어요. 조금 쫘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앞서 동시대 여성 감독들이 기존과는 다른 어머니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디어와 매체에서 그려지는 모성의 모습과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성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경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양가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어머니기를 바라면서도 또 그것에서 완전히 반대로 다 벗어던지고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양가 감정이 이 캐릭터에 있었고, 그걸 쓰고 싶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시대 여성 감독님들 또한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남궁선

내가 온전히 입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셔서 그게 이 영화의 고유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화정

마침 오늘 얘기하는 작품들이 그간 모성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복순> 같은 경우도 마지막 결행의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만의 동력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서 드러날 때 제작 과정에서 조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복순>은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준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장르 안에 새로운 환기를 주겠다는 목표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길복순>을 통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변성현

어떤 거창한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킬러 세계관을 가진 영화들이 그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비틀려는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납치당한 사람이 없고, 복수를 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싸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영화 부문 벡델리안과의 만남

모성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는 제가 여성 주인공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전도연 선배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옆에서 많이 관찰했습니다. 사실 딸이랑 나누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둘인 집안인데 사실 엄마랑 대화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엄마랑 딸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니 아무리 장르영화라 하더라도 제가 쓰는 게 다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서 전도연 선배 모녀가 하는 대화들을 지켜봤죠. 노트북 들고 앉아서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적고.

이화정 그럼 실제 대사에 전도연 배우 모녀 간 대화가 반영된 건가요.

변성현 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정 지금까지 창작의 비밀을 살짝 밝혀봤습니다. 작년 벡델리안으로 선정되신 정서경 작가님도 영화계에 여성 작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벡델데이 벡델테스트7에도 여성 스태프 비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성 서사를 그릴 때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 지점이 생각이 납니다. 타인의 경험을 듣고 이를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궁현 전도연 배우님을 보면서 디테일을 찾아냈다고 하시니 ‘생활인’으로서의 엄마의 모습이 잘 그려진 것이 그 덕분이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엄마로서, 실제 생활이 이야기에 잘 반영돼 있다고 느꼈거든요. 대사 중에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벡델리안 제작자상을 받은 이진희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도 살짝 궁금한데요. ‘한부모 가족, 아이가 있는 중년의 생활형 캐릭터인데 그가 바로 최고의 킬러다.’ 저는 이게 오히려 장르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전무후무한 캐릭터 역시 전도연 선배님을 위해서 탄생시킨 것이겠죠?

변성현 전도연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여서 최고의 킬러로 둔 거였어요. 모두의 롤모델이고 아이돌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것보다 연기가 좀 더 쉬워.’를 쓴 걸 수도 있다고. 이진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랑 네 번째 작품인데, 늘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최대한 감독의 생각을 밀어주는 대표님입니다. 그런데 길복순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대표님이 여성이긴 하지만 미혼에 독신이세요. 미혼에 독신인 저랑 같아요. 그래서 어쩌냐고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답을 찾으려면 도연 선배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화정 그럴 때 전도연 배우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변성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도연 특유의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이딴 걸 대사라고 써와.”라고 하시죠. (좌중 웃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액션 장면이 아니라 재영이랑 엄마

가 나누는 7분가량의 대화 신인데, 그 장면을 쓸 때 제가 먼저 써서 드린 다음에 “선배님, 이런 상황만 있고 즉흥으로 연기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고 선배님이 하는 연기를 제가 받아 적어 완성했어요. 그래서 “각색 타이틀을 내놔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윤색은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좌중 웃음)

이화정

변성현 감독님이 계속 전도연 배우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새로운 지점을 열어주는 영화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한 분들에게 길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유도 영화라는 것이 협업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배우들이 다양한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 그리고 평등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 영화에서 배우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희>의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 전도연 배우가 각색 타이틀을 원한 것처럼 기획 타이틀을 달라고 해도 말이 될 만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영화로 만들기 어려운 소재를 영화화하게 하고 관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리

배두나 배우는 제 첫 영화인 <도희야>에서도 주인공을 하고 이번 영화에서도 같이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배두나가 없었다면 두 영화는 나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화 때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처음이고 연출도 마찬가지로 상태였는데도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해주었고, 그리고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셨달까요. 그 역할을 연기하는 데에서의 탁월함은 둘째로 치더라도 모든 게 미숙하고 처음인 저를 정말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영화 현장에서 진짜 어른은 배두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 곱게 챙겨가면서 작업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당시에는 소속사나 매니저가 없어서 운전도 혼자 하고 다니면서 작업했었던데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영화를 만들 때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된 게, 제가 배두나 배우가 있기 때문에 유진이라는 역할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배두나가 연기할 유진을 떠올리고 ‘이런 표현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물론 실제 촬영장에서 연기할 때는 차원이 다른 희열이 또 있었지만요. 게다가 또 오랜만에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고, 2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낯선 형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위험하다고도 말했는데, 이 배우의 선택으로 제가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시나리오와 내가 만들 영화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순전히 배두나라는 배우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시나리오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아 끝까지, 무사히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앞서 변성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본 후 전도연 배우의 반응을 알려주셨는데, 배두나 배우님은 없었나요?

정주리

“두 줄만 읽어도 알겠다. 정주리가 쓴 거라는걸.” 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화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 남궁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복순> 오프닝에서 이마트에서 산 3만 원짜리 도끼를 들고 싸우잖아요. 그때도 저는 좀 감정 이입을 했거든요. 약간 여성 창작자의 느낌이 3만 원 짜리 도끼만 들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배우 분들이 사실 그 장비를 바꿔주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작 타이틀 가져가실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웃음)
- 이화정**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바비>도 마고 로비가 제작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성 배우들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대치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 남궁선** 관객과 마찬가지로 배우 역시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양말복 배우님께서 또 너무나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셨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세인** 양말복 배우는 연극을 20~30년가량 하셨고 영화에서도 작은 역할을 종종 하셨는데, 주연은 처음이셨어요. 말복 배우님과 저의 니즈가 완전히 아귀가 딱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복 선배님께서 대본 리딩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모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구시대의 엄마를 모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 분들이 마음속으로 “엄마가 어떻게 저래?”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말복 선배님께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엄마가 어떻게 이래?”라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인물은 각자의 작동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타인의 시선으로 먼저 재단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죠. 그런 부분이 저하고 맞아 떨어진 부분 같습니다.
- 이화정** 전도연, 배두나 배우 모두 시나리오를 두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양말복 배우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 김세인**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좌중 웃음)
- 변성현**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 감탄과 비슷하네요.(웃음)
- 정주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엄마가 어떻게 저래?”라고 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엄마 저렇지”라고 했을걸요.
- 김세인** 맞아요. 저도 그런 상충된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 이화정** 여성 주인공인 영화의 경우 실제로 남성 배우들이 조연 역할을 고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톱스타급 여성 배우들은 비교적 작은 역할, n분의 1의 역할들도 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배우들의 빛나는 열연, 그리고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영화를 완성된 형태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 관객 1** 정주리 감독님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화가 개봉 후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법 개정도 됐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 정주리** 지금도 많은 곳에서 단체 상영을 하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데요. 일단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개봉한 지도 오래됐고 또 극장에서 진작에 내렸는데 그렇게 모여서 영화를 보고 계시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음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마도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여전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행이고 고맙고 너무나 잘됐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다음 소회> 때문에 만들어진 법은 아니에요. 그 법은 2021년에 여수에서 있었던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가 죽음을 맞이한 친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계류만 되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었는데 <다음 소회>가 개봉을 하면서 그 법안이 다시 좀 살아나서 빠르게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법안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많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좀 착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 실습 관련한, 산재해 있던 80여 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단체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발대식을 하는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거기 실제 사건의 홍수현 양 아버지이신 홍순성 선생님도 계시고, 이 영화 만들면서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더 근본적인 데까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졌습니다.
- 관객 2** 변성현 감독님께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연출작 중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계>를 여성 캐릭터, 여성 서사로 리메이크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단순히 캐릭터 성격을 바꾸는 것 말고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남성 서사와 여성 서사가 어떤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변성현** 그건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되게 오래 생각해야 하는 질문인데요. 한 모레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좌중 웃음) 그냥 가볍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계>를 여성 서사 버전으로 찍어야 된다면 설경구 선생님 역할은 100% 전도연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 이화정** 브로맨스가 워맨스로 바뀌는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싶은데요. 며칠 숙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관련해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객 3** 오늘 주제인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즉, 죽거나 나쁜 여자가 아닌 단일하지 않은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쓰실 때 참고하는 콘텐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변성현** 저는 사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봐요.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창작이 들어간 콘텐츠보다는 그냥 실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걸 많이 참고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영화 부문 벅델리안과의 만남

김세인

이번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떠올렸을 때가 2016년도인데요. 이 영화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뭔가 이야기로 쓰려고 하는데 아무한테도 공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모녀 심리학 책이나 모녀 사례집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 이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동년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와 가까웠다면, 수경은 연배 차이가 크다 보니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이때 목욕탕에서 많이 뭔가 배웠어요. 있는 그대로 대사를 쓴 건 아니지만 탕 안에 있으면 여러 수다들이 있잖아요. 그때 뭔가 촌철살인이면서 해학적이고 유머가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계각층의 철학도 있고. 그게 뭔가 수경 캐릭터에서 유머의 리듬 같은 걸 만들 때 많은 참고가 되었구요. 수경이 젖은 속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목욕탕을 참 많이 가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냉탕에 중년 여성 한 분하고 오이 하나가 동동 떠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애매해서 눈치만 보다가 일단 냉탕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오이를 탕 안에서 씹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재미있고 엉뚱한 거예요. 그렇게 목욕탕 안에서 중년 여성들의 귀엽고 엉뚱한 면을 많이 본 것이 시나리오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화정

거기에서 혹시 <슈룹> 박바라 작가님 못 만나셨나요? 그분은 찜질방에 가서 그렇게 대화를 훔쳐 듣는다는데, 한국영화와 시리즈의 창작 소스는 찜질방, 목욕탕에서 얻는 걸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웃음)

정주리

<다음 소희>는 취재 자료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관련한 에세이집이나 현장 실습생 출신 작가 분이 쓴 회고록 같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자료들도 있지만 대개는 거기서 드러나는 감정들이 인물들을 상상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영화를 한창 준비할 때는 보질 못했는데 제가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더라고요.(좌중 웃음)

남궁선

SNS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작품과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물어보셨네요.

김세인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건 일과 저와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일과 여성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주리

저는 구체적인 다음 작품을 말씀드릴 순 없고, 그냥 두 번째 작품까지 8년이 걸렸는데 되도록 4년 안에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어쩌면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 같기도 한데.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여자 주인공으로 한 영화, 얼마든지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를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성현

저는 장르를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서 계속하면서 장르를 바꿔왔는데요. 다음에는 코미디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화정 감독님의 또 다른 장르 개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벡델 토크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자리가 영화를 보고 즐기는 데 있어 다양한 시각을 갖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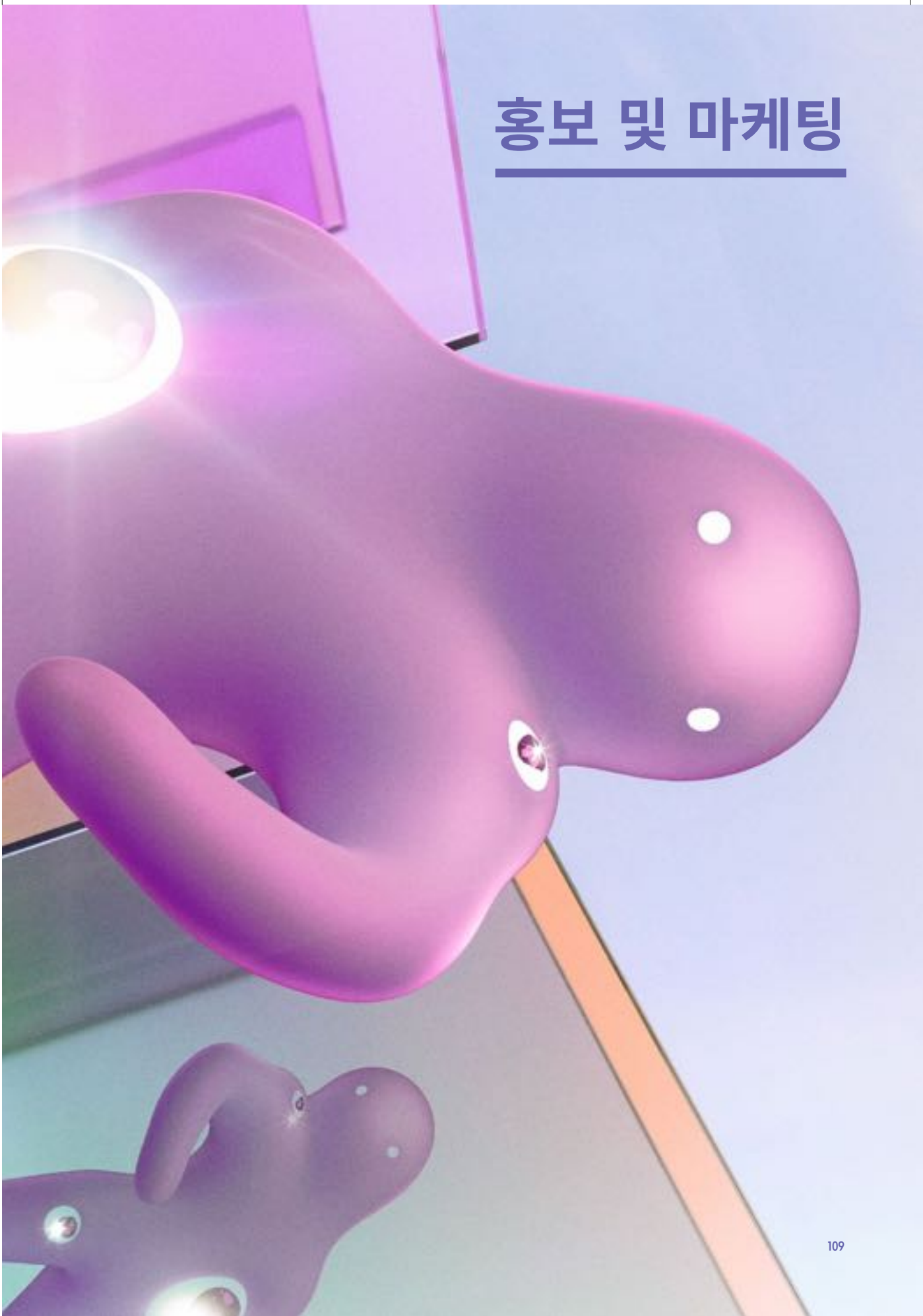
남궁선 함께 시간 보내서 저도 뜻 깊었고요. 특히 글도 쓰고 연출도 하시는 ‘곤조 있는’ 감독님과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어요.(웃음) 벡델데이 벡델테스트로 저희가 7개 조항을 만들어 냈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어떤 조항을 추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성의 희생으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추가하는 건 어떤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또 벡델초이스로 선정된 영화들 재밌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창작자로서 힘을 받아서 좋은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벡델데이의 목표는 ‘벡델데이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인데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벡델데이가 많은 창작자들에게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작품 만드실 때 테스트 조항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매체 홍보

백델데이2022가 언론 홍보 기간을 8월 8일부터 시작한 것과 달리 백델데이2023은 보름가량 앞당긴 7월 18일부터 행사가 끝난 9월 6일까지 총 10회차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총 59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보도 건수 자체는 작년(62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KBS 뉴스브런치> 등 지상파 라디오와 「중앙일보」,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 매체 칼럼을 통해 백델데이의 의미와 올해 선정된 작품, 인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백델데이2023은 시리즈 부분의 확대를 계기로 시리즈, 영화별 백델초이스10, 백델리안 선정에 관한 소식을 개별적으로 보도자료화 했다. 또한 오프라인 시상식 및 토크와 상영 프로그램 등을 강조해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영화계 등 콘텐츠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범 대중적으로 백델데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보도자료 배포 내역

총 10회차의 보도자료가 발송되었다. 전반부에는 벡델데이2023 포스터 공개와 예심 대상작 및 선정 방법 등 벡델데이의 의미를 상세하게 짚어주는 보도자료 아이템을 개발, 진행하였다. 특히 예심 대상작 및 선정 방법에 대한 보도자료는 벡델초이스10, 벡델리안을 선정하는 과정은 물론 예심 심사 대상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회차	발송일	아이템	제목
1	7.18.	개최 안내/ 포스터 공개	한국콘텐츠의 성평등 미래 밝힐 벡델데이2023,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2	7.27.	예심 대상작 및 선정 방법	올해의 성평등한 작품 벡델초이스10, 올해의 인물 벡델리안, 어떻게 선정될까?
3	8.9.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	〈길복순〉부터 〈다음 소희〉까지, 영화 부문 2023 벡델초이스10 공개됐다!
4	8.11.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	〈더 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 등, 시리즈 부문 2023 벡델초이스10 발표!
5	8.14.	영화 부문 벡델리안 발표	〈유령〉 이하늬, 벡델데이2023 영화 부문 벡델리안 배우상 수상자 선정!
6	8.16.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발표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 5와 벡델리안 발표! 〈더 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 배우 임지연, 벡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되다!
7	8.22.	프로그램 및 시간표 공개	벡델데이2023 즐길 준비 됐나요? 게스트 및 시상식, 토크, 상영 스케줄 발표!
8	8.24.	언론 취재 안내	[신청필수] 벡델데이2023 벡델리안시상식에 초대합니다!
9	8.31.	개최 예고	벡델데이2023 내일 개막! 토크 프로그램 매진 행렬!
10	9.6.	행사 결산	벡델데이2023 화려하게 마무리! 성평등한 상상력 보여주는 콘텐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나눠

언론보도 현황

8월부터 9월에 걸쳐 중소 영화제 및 행사가 집약되어 있어 보도량 자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심사위원 및 행사 패널, 모더레이터로 행사에 참여한 드라마 평론가, 영화평론가, 기자 등 전문가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벵델데이를 홍보하고 의미를 알리는 데 동참했으며 이로 인해 <KBS 뉴스브런치> 등 지상파 라디오와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 매체 칼럼, 「씨네플레이」 등 영화 전문 매체 등에서 벵델데이의 의미와 올해 선정작, 인물 등이 소개될 수 있었다.

① 주요 기사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7.25.	씨네플레이	문화기획자 하치		영화전문매체
8.9.	연합뉴스	오보람		통신사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14.	조선비즈	조명현		경제지
8.14.	여성신문	이세아		주요 일간지
8.22.	경향신문	최민지		주요 일간지

언론보도 현황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31.	중앙일보	나원정	The JoongAng [종합] "더 글로리" 열풍, 올해의 시리즈 배우...내일부터 백영라만2023	주요 일간지
8.31.	KBS 뉴스브런치	손희정 평론가	11:05 뉴스 브런치 신성원 손희정 백영라에 2023년 영화계 엘리스 백영라의 상황을 제수?	라디오
9.4.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민정 평론가	MONDE diplomatique [공산당에 문화혁명] 2023년 올해의 책들부터, 그들은 누구인가 (I)	시사지

② 전체 기사

순번	날짜	매체	기자	제목
1	7.18.	뉴스1	정유진	백델데이2023, 9월1일부터 3일까지 인디스페이스서 3일간 개최
2	7.18.	SBS연예뉴스	김지혜	백델데이2023, 9월 1~3일 인디스페이스서 개최... 슬로건·포스터 공개
3	7.18.	싱글리스트	조재용	백델데이2023, 9월 1~3일 인디스페이스서 개최... 올해의 포스터 공개
4	7.18.	중앙뉴스	신현지	백델데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올해의 포스터 공개
5	7.18.	시사뉴스	정춘옥	영화영상 미디어에서의 성평등적 시각을 평가하는 백델데이
6	7.18.	파이낸셜 뉴스	정유진	백델데이2023, 9월1일부터 3일까지 인디스페이스서 3일간 개최
7	7.18.	네이트		백델데이2023, 9월 1~3일 인디스페이스서 개최... 슬로건·포스터 공개
8	7.25.	씨네플레이	문화기획자 하치	‘백델데이2023’을 기다리며 뽑아본 나만의 ‘백델초이스5’!
9	8.2.	데일리엠	전성진	백델데이2023: 성평등을 빛내는 한국 영화영상의 희망
10	8.9.	연합뉴스	오보람	올해 백델초이스 영화에 ‘길복순’·‘다음 소희’ 등 선정
11	8.9.	뉴스1	정유진	‘외계+인’·‘길복순’ 등 10편, 백델초이스10 선정
12	8.9.	텐아시아	이하늘	백델데이2023,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공개... ‘길복순’→‘외계+인’
13	8.9.	데일리안	류지윤	‘길복순’→‘다음 소희’, 2023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발표
14	8.9.	SBS연예뉴스	김지혜	‘길복순’·‘다음 소희’·‘외계인’ 등 백델테스트 통과한 수작... ‘백델초이스10’ 선정

언론보도 현황

순번	날짜	매체	기자	제목
15	8.9.	맥스무비	조현주	올해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발표... ‘길복순’·‘다음 소희’·‘정이’ 등
16	8.9.	네이트		‘외계+인’·‘길복순’ 등 10편, 백델초이스10 선정
17	8.9.	스포츠경향	손봉석	올해 백델초이스 영화 ‘길복순’·‘다음 소희’ 등 선정
18	8.11.	더팩트	박지윤	‘더 글로리’→‘우영우’·‘슈룹’, 2023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선정
19	8.11.	맥스무비	조현주	‘더 글로리’ ‘우영우’ 등 다양한 여성 캐릭터 인정 ‘백델초이스10’ 선정
20	8.11.	조이뉴스24	김양수	성평등 재현 ‘백델초이스10’, ‘더글로리’ ‘마당집’→‘우영우’ 선정
21	8.13.	KBS 스타연예	박재환	“여성 캐릭터의 화려한 성과” 2023 시리즈부문 백델초이스10... 〈더 글로리〉〈작은 아씨들〉〈마당이 있는 집〉 등
22	8.14.	스포츠조선	이우주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배우 선정 “독창적 여성 캐릭터 구현”
23	8.14.	싱글리스트	용원중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배우 선정 “독창적 여성 캐릭터 구현”
24	8.14.	셀럽미디어	박수정	‘유령’ 이하늬, 올해의 영화 부문 백델리안(배우) 선정
25	8.14.	조선비즈	조명현	이하늬, 한국영화감독조합이 뽑은 올해의 인물 ‘백델리안’ 선정
26	8.14.	일간스포츠	정진영	‘유령’ 이하늬, 백델데이2023 영화 부문 올해의 배우 선정
27	8.14.	JTBC 뉴스	김선우	이하늬, ‘유령’으로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
28	8.14.	여성신문	이세아	이하늬, ‘영화계 성평등 공헌’ 상 받는다
29	8.14.	엑스포츠 뉴스	윤현지	‘유령’ 이하늬, 영화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

순번	날짜	매체	기자	제목
30	8.14.	MBC 연예	김경희	이하늬, '유령'으로 올해의 백델리안(배우) 선정!
31	8.14.	스타뉴스	김나연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독창적 女 캐릭터 구현”
32	8.14.	스트레이트뉴스	양용은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2023' 배우 부문 선정
33	8.14.	뉴스엔	배효주	이하늬 '유령'으로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 女액션 새 시대 열었다
34	8.14.	이데일리	김보영	'유령' 이하늬, 영화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
35	8.14.	조이뉴스24	김양수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독창적 女캐릭터
36	8.14.	뉴스컬처	김기주	이하늬, '유령'으로 올해의 백델리안(배우) 선정.. 이하늬가 이하늬했다
37	8.14.	미디어펜	김민서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독창적 女캐릭터
38	8.14.	라온신문	장슬기	'유령' 이하늬, 올해의 백델리안 선정... “여성 액션 영화 새 시대 열었다”
39	8.16.	뉴스1	정유진	임지연, 올해의 백델리안 배우상 “동물적 연기 극과 극 온도차”
40	8.16.	SBS연예뉴스	김지혜	임지연, 백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선정
41	8.16.	싱글리스트	강보라	임지연, 백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선정
42	8.16.	텐아시아	이하늘	백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더 글로리' 배우 임지연→ '작은 아씨들' 조문주 제작자
43	8.16.	JTBC 뉴스	박정선	'더 글로리' 임지연, 올해의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44	8.16.	노컷뉴스	최영주	'유령' 이하늬, 백델데이2023 영화 부문 백델리안 선정

언론보도 현황

순번	날짜	매체	기자	제목
45	8.17.	TV 리포트	김연주	임지연, 꺾이지 않는 인기...올해의 백델리안 등극
46	8.22.	연합뉴스	오보람	[영화소식] '백델데이2023' 내달 1일부터 사흘간 개최
47	8.22.	일간스포츠	정진영	봉태규~정주리 감독... '백델데이2023' 뜬다!
48	8.22.	경향신문	최민지	'더 글로리' 임지연 "빌런 얼굴에 복잡한 욕망의 경로 새겨"... 백델데이 시리즈 부문 배우상 선정
49	8.22.	한국경제		[영화소식] '백델데이2023' 내달 1일부터 사흘간 개최
50	8.30.	스포츠한국	박영선	'골 때리는 그녀들'·이지나 연출가...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51	8.30.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골 때리는 그녀들' ·이지나 연출 선정
52	8.30.	천지일보	장수경	'골 때리는 그녀들'·연출가 이지나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53	8.30.	연합뉴스	이은정	'양성평등문화상'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지나 연출
54	8.30.	뉴스핌	이현경	문체부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55	8.30.	우먼타임스	한기봉	9월 1~7일은 '양성평등주간'입니다
56	8.31.	싱글리스트	강보라	백델데이2023, 9월 1일 개막...토크 프로그램 매진 행렬
57	8.31.	중앙일보	나원정	'더 글로리' 임지연, 올해의 시리즈 배우... 내일부터 백델리안2023
58	8.31.	KBS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손희정 평론가	[뉴스브런치] 출산연령 33.5세, 출산율 0.78명, 인구절벽 가속화 + '백델의 성평등지수, 백델데이2023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손희정 평론가, 신성원 아나운서
59	9.4.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민정 평론가	[김민정의 문화톡톡] 2023년 올해의 백델리안, 그들은 누구인가 (1)

백델데이2023 온라인 홍보는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운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중심으로 트위터, 홈페이지, 영화전문 유튜브 채널을 동반 운영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는 7월 17일부터 백델데이2023 로고를 활용해 행사를 예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6일 행사 종료를 알리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 포스팅을 업로드까지 총 91개 포스팅을 제작 배포했다. 이는 작년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량(약 60개)과 비교해 30%가량 확대한 것으로, 타깃에 최적화된 기획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고 인스타그램 광고 및 이벤트를 병행하여 팔로워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백델데이2023의 취지와 백델초이스10 선정작과 백델리안 등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관객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행사 기록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이화정 저널리스트가 고정 출연하는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 ‘무비건조’를 통해 백델데이를 소개함으로써 영화 고관심층의 주목을 모으기도 했다.

1) SNS 홍보

올해 SNS 공식 채널 운영은 행사 기획 및 방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확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모객에 앞장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운영 초반에 백델데이의 뜻과 행사의 의미, 백델테스트 소개 등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유엔개발계획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소개, 백델테스트를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접목시킨 ‘백델테스트 프리패스 예능 BEST 7’, 미국과 한국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봉작 <바비>와 <밀수> 소개, 2022 백델리안이 뽑은 ‘가장 백델다운 캐릭터 6’ 등 기획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 배포하였다. 대중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모으며 2022년 백델초이스10을 되돌아보는 데 이어, 백델데이2023 백델초이스10과 백델리안 발표까지 이어가는 등 전략적인 홍보에 매진했다. 주관사인 DGK(한국영화감독조합) 공식 채널에서 꾸준히 동반 포스팅을 실시했으며, 대중적으로 백델데이가 알려짐에 따라 별도의 광고 집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박스 공식 채널 및 영화 소개 채널 등에서 백델데이 포스팅을 별도 구성, 업로드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경우 지난해 1,171명에서 1,715명으로 46.46%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① 팔로워 현황

- 개요

인스타그램 1,171→1,715(46.46%) 증가

트위터 782→872(11.51%) 증가

총계 1953→2587(32.46%) 증가

* 집계는 백델데이2022 자료집 기준 팔로워~2023년 9월 15일까지



백델데이 인스타그램

백델데이 트위터

② 게시물 업로드 일정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1	7.17.(월)	백델데이2023 커밍썬_분홍색 로고	
2	7.18.(화)	백델데이2023 커밍썬_포스터	
3	7.18.(화)	백델데이2023 커밍썬_보라색 로고	
4	7.20.(목)	백델데이란?	광고집행
5	7.25.(화)	무빙 포스터(서브 포스터) 소개	
6	7.26.(수)	‘유엔개발계획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소개	
7	7.28.(금)	백델테스트 프리패스 한국예능 BEST7	
8	7.31.(월)	백델초이스10과 백델리안, 어떻게 뽑힐까?	
9	8.1.(화)	백델지수가 높으면 흥행도 잘된다? 〈바비〉 & 〈밀수〉	
10	8.3.(목)	2022 백델리안이 추천하는 가장 백델다운 캐릭터6	
11	8.4.(금)	당신이 사랑하는 백델다운 캐릭터는 누구?	댓글 이벤트 광고 집행
12	8.7.(월)	백델데이2022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돌아보기	
13	8.8.(화)	백델데이2022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6 돌아보기	
14	8.9.(수)	백델데이2023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공개	광고 집행
15	8.10.(목)	당신이 사랑하는 백델다운 캐릭터는 누구? 당첨자 발표	
16	8.11.(금)	백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공개	광고 집행
17	8.14.(월)	영화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발표	광고 집행
18	8.16.(수)	시리즈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발표	광고 집행
19	8.17.(목)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20	8.17.(목)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글리치〉	
21	8.18.(금)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길복순〉	
22	8.18.(금)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더 글로리〉	
23	8.19.(토)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다음 소희〉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24	8.19.(토)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마당이 있는 집〉	
25	8.20.(일)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드림팰리스〉	
26	8.20.(일)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박하경 여행기〉	
27	8.21.(월)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성적표의 김민영〉	
28	8.21.(월)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사랑의 이해〉	
29	8.21.(월)	영화부문 백델리안_배우 이하늬	
30	8.21.(월)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배우 임지연	
31	8.22.(화)	백델데이2023 프로그램 공개	
32	8.22.(화)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소울메이트〉	
33	8.22.(화)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슈룹〉	
34	8.22.(화)	영화부문 백델리안_감독 정주리	
35	8.22.(화)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감독 이종필	
36	8.23.(수)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외계+인 1부〉	
37	8.23.(수)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어쩌다 마주친, 그대〉	
38	8.23.(수)	백델데이2023 행사 시간표	
39	8.23.(수)	영화부문 백델리안_작가 김세인	
40	8.23.(수)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작가 박바라	
41	8.24.(목)	백델데이2023 홍보 영상	
42	8.24.(목)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유령〉	
43	8.24.(목)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4	8.24.(목)	영화부문 백델리안_제작자 이진희	
45	8.24.(목)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제작자 조문주	
46	8.24.(목)	행사소개_시리즈 부문 시상식 및 백델토크	광고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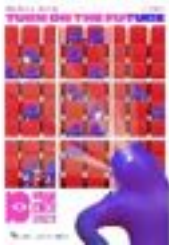
홍보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47	8.25.(금)	행사소개_영화 부문 시상식 및 벡델토크	광고 집행
48	8.25.(금)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_〈정이〉	
49	8.25.(금)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_〈작은 아씨들〉	
50	8.26.(토)	행사소개_〈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광고 집행
51	8.26.(토)	행사소개_〈유령〉 관객과의 대화	광고 집행
52	8.26.(토)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_〈정직한 후보2〉	
53	8.26.(토)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_〈퀸메이커〉	
54	8.27.(일)	행사 예고 D-5	
55	8.28.(월)	행사 예고 D-4	
56	8.28.(월)	행사소개_게스트 변경 공지	
57	8.28.(월)	올해의 벡델리안에게 묻는다	이벤트 광고 집행
58	8.28.(월)	부대행사_인생네컷 공지	
59	8.29.(화)	행사 예고 D-3	
60	8.29.(화)	벡델데이2023 이모지 퀴즈	댓글 이벤트
61	8.29.(화)	벡델데이2023 굿즈 소개	
62	8.29.(화)	벡델데이2023 홍보 영상	
63	8.29.(화)	벡델데이2023 벡델초이스10, 벡델리안 전체 서머리	광고 집행
64	8.30.(수)	행사 예고 D-2	
65	8.30.(수)	〈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마감 안내	
66	8.30.(수)	영화전문 유튜브 채널 '무비건조' 영상 인사	
67	8.31.(목)	행사 예고 D-1	
68	8.31.(목)	나만의 벡델초이스 빙고	
69	8.31.(목)	벡델데이2023 관람 안내	
70	8.31.(목)	사전 신청 행사 매진 안내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71	9.1.(금)	행사 예고 D-DAY	
72	9.1.(금)	9월 1일 오늘의 행사 안내	
73	9.1.(금)	〈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현장 스케치	
74	9.2.(토)	9월 2일 오늘의 행사 안내	
75	9.2.(토)	시리즈 부문 시상식 행사 스케치	
76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 박바라 소개 영상	
77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 임지연 소개 영상	
78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감독상 이종필 소개 영상	
79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제작자상 조문주 소개 영상	
80	9.2.(토)	영화 부문 시상식 현장 스케치	
81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 김세인 소개 영상	
82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 이하늬 소개 영상	
83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감독상 정주리 소개 영상	
84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제작자상 이진희 소개 영상	
85	9.3.(일)	9월 3일 오늘의 행사 안내	
86	9.3.(일)	시상식 현장 엿보기	
87	9.3.(일)	〈유령〉 관객과의 대화 현장	
88	9.6.(수)	백델데이2023 행사 스케치 영상	
89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90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91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홍보

③ 업로드 내용

		
7.17.(월) 백델데이2023 커밍썬_분홍색 로고	7.18.(화) 백델데이2023 커밍썬_포스터	7.18.(화) 백델데이2023 커밍썬_보라색 로고
		
7.20.(목) 백델데이란?	7.25.(화) 무빙 포스터(서브 포스터) 소개	7.26.(수) ‘유엔개발계획의 젠더사회규범지수 (GSNI)’ 소개
		
7.28.(금) 백델테스트 프리패스 한국예능 BEST 7	7.31.(월) 백델초이스10과 백델리안, 어떻게 뽑힐까?	8.1.(화) 백델지수가 높으면 흥행도 잘된다? <바비> & <밀수>
		
8.3.(목) 2022 백델리안이 추천하는 가장 백델다운 캐릭터 6	8.4.(금) 당신이 사랑하는 백델다운 캐릭터는 누구?	8.7.(월) 백델데이2022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돌아보기

		
8.8.(화) 백델데이2022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6 돌아보기	8.9.(수) 백델데이2023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공개	8.10.(목) 당신이 사랑하는 백델다운 캐릭터는 누구? 당첨자 발표
		
8.11.(금) 백델데이2023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공개	8.14.(월) 영화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발표	8.16.(수) 시리즈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발표
		
8.17.(목)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8.17.(목)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글리치>	8.18.(금)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길복순>
		
8.17.(목)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더 글로리>	8.19.(토)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다음 소희>	8.19.(토)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마당이 있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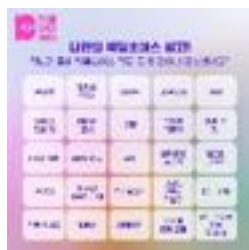
홍보

 TURN ON THE FUTURE 8월 20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드림팰리스>	 TURN ON THE FUTURE 8월 20일 개봉 예정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박하경 여행기>	 TURN ON THE FUTURE 8월 21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성적표의 김민영>
 TURN ON THE FUTURE 8월 21일 개봉 예정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사랑의 이해>	 TURN ON THE FUTURE 8월 21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리안_배우 이하니	 TURN ON THE FUTURE 8월 21일 개봉 예정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배우 임지연
 TURN ON THE FUTURE 8월 22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소울메이트>	 TURN ON THE FUTURE 8월 22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소울메이트>	 TURN ON THE FUTURE 8월 22일 개봉 예정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슈룹>
 TURN ON THE FUTURE 8월 23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외계+인 1부>	 TURN ON THE FUTURE 8월 23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외계+인 1부>	 TURN ON THE FUTURE 8월 23일 개봉 예정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외계+인 1부>

		
8.23.(수)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어쩌다 마주친, 그대〉	8.23.(수) 백델데이2023 행사 시간표	8.23.(수) 영화 부문 백델리안_작가 김세인
		
8.23.(수)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작가 박바라	8.24.(목) 백델데이2023 홍보 영상	8.24.(목)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유명〉
		
8.24.(목)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24.(목) 영화 부문 백델리안_제작자 이진희	8.24.(목)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_제작자 조문주
		
8.25.(금) 행사소개_ 시리즈 부문 시상식 및 백델토크	8.25.(금) 행사소개_ 영화 부문 시상식 및 백델토크	8.25.(금)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정이〉

홍보

		
8.25.(금)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작은 아씨들〉	8.26.(토) 행사소개_〈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8.26.(토) 행사소개_〈유령〉 관객과의 대화
		
8.26.(토)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정직한 후보2〉	8.26.(토)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소개_ 〈권메이커〉	8.27.(일) 행사 예고 D-5
		
8.28.(월) 행사 예고 D-4	8.28.(월) 행사소개_게스트 변경 공지	8.28.(월) 올해의 백델리안에게 묻는다
		
8.28.(월) 부대행사_인생네컷 공지	8.29.(화) 행사 예고 D-3	8.29.(화) 백델데이2023 이모지 퀴즈

		
8.29.(화) 백델데이2023 굿즈 소개	8.29.(화) 백델데이2023 홍보 영상	8.29.(화) 백델데이2023 백델초이스10, 백델리안 전체 서머리
		
8.30.(수) 행사 예고 D-2	8.30.(수) 〈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마감 안내	8.30.(수) 영화전문 유튜브 채널 '무비건조' 영상 인사
		
8.31.(목) 행사 예고 D-1	8.31.(목) 나만의 백델초이스 빙고	8.31.(목) 백델데이2023 관람 안내
		
8.31.(목) 사전 신청 행사 매진 안내	9.1.(금) 행사 예고 D-DAY	9.1.(금) 9월 1일 오늘의 행사 안내

홍보

		
9.1.(금) 〈소울메이트〉 관객과의 대화 현장 스케치	9.2.(토) 9월 2일 오늘의 행사 안내	9.2.(토) 시리즈 부문 시상식 행사 스케치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 박바라 소개 영상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 임지연 소개 영상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감독상 이종필 소개 영상
		
9.2.(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제작자상 조문주 소개 영상	9.2.(토) 영화 부문 시상식 현장 스케치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 김세인 소개 영상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 이하니 소개 영상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감독상 정주리 소개 영상	9.2.(토) 영화 부문 백델리안 제작자상 이진희 소개 영상

		
9.3.(일) 9월 3일 오늘의 행사 안내	9.3.(일) 시상식 현장 엿보기	9.3.(일) <유경> 관객과의 대화 현장
		
9.6.(수) 백델데이2023 행사 스케치 영상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9.6.(수) 백델데이2023 종료 안내		

홍보

④ 이벤트 진행 내역

순번	기간	내용	경품	선정인원	실당첨자
1	8.4.~8.9.	당신이 사랑하는 가장 ‘벡델다운’ 캐릭터는 누구?	메가박스 관람권(1인2매)	5	5
2	8.28.~8.31.	올해의 벡델리안에게 묻는다	메가박스 관람권(1인2매)	5	5
3	8.29.~9.3.	벡델초이스10 이모지 퀴즈	메가박스 관람권(1인2매)	5	5
4	9.1.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소울메이트〉 GV	〈소울메이트〉 각본집, 벡델데이 굿즈	5	5
5	9.2.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벡델 토크 1〉	〈슈룹〉 각본집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몰스킨 노트	3	3
6	9.2.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벡델 토크 2〉	〈다음 소희〉 각본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각본집, 몰스킨 노트	3	3
7	9.3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유령〉 GV	몰스킨 노트, 벡델데이 굿즈	6	6
8	9.1.~9.3.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굿즈	299	299

⑤ 외부 홍보협조

	
인디스페이스 인스타그램	영화제 다니는 사람들 : 영다사 인스타그램

	
메가박스 메가로그 인스타그램	옛나인필름 인스타그램
	
사람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2) 홈페이지

지난해에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벡델데이2023의 상세한 취지와 행사 내용,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였다. 홈페이지는 Google Sites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이전 행사 기록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SNS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심사평과 벡델초이스10 선정의 변 등을 상세하게 게시하였으며, 벡델리안의 경우 선정자의 필모그래피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① 메뉴 구성

제목	소제목	내용
BECHDELDAY	벡델데이2023	행사 소개 / 포스터 소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및 게스트 소개
	역대 벡델데이	역대 행사 아카이브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작품 소개 및 심사평
	벡델리안	수상자 소개 및 심사평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작품 소개 및 심사평
	벡델리안	수상자 소개 및 심사평
행사 안내	관람안내 및 사전신청	관람안내 및 사전신청 링크
	오시는 길	인디스페이스 위치 안내

② 페이지별 세부 내용

	
메인페이지	백델데이2023
	
프로그램	역대 백델데이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10	영화 부문 백델리안
	
시리즈 부문 백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관람안내 및 사전신청	오시는 길

3) 유튜브(무비건조)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 이화정, 김도훈과 음악평론가 배순탁이 함께 운영하는 영화 유튜브 채널 ‘무비건조’와 협업하여 벡델데이2023 특집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벡델데이2023의 의미와 올해 수상자, 프로그램 등에 대해 토크 형태로 진행하여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벡델데이를 알릴 수 있었다. 이후 SNS나 현장 반응을 통해 무비건조 기존 구독층이 벡델데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행사 종료 이후에도 채널 내 영상을 통해 벡델데이2023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무적이다.

‘무비건조’ 벡델데이 특집 영상

- 제목: 📍 ‘턴 온 더 퓨처!’ 미래를 바꿀 우리가 왔다! |
4회 #벡델데이2023 #영화축제 지금 시작합니다! 🌈🌟🍷🌹
- 일정: 8.30. 업로드
- 조회수: 약 2,50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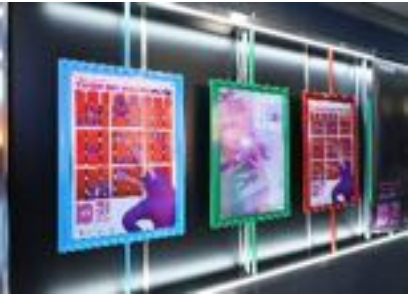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치른 만큼 다양한 선재물과 굿즈를 제작해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행사를 알리
고자 했다.

1) 선재물

현장에서 리플릿을 비치해 한눈에 행사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관람을 도왔고, 포스터 부착 및 등신대 설치를 통해 행사
장 환경을 조성했다.

	
현장 리플릿 (외지)	현장 리플릿 (내지)
	
포토월	포스터
	
캐릭터 등신대 및 익스배너	상영시간표 배너

	
엽서	사회자석 백월 배너

2) 굿즈

굿즈는 올해 포스터와 벡델데이 캐릭터 등 키디자인을 반영하여 키링, 배지, 볼펜 총 3종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공개 후 SNS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현장 이벤트로 증정되었을 때도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

		
키링 (300EA)	배지 (400EA)	볼펜 (500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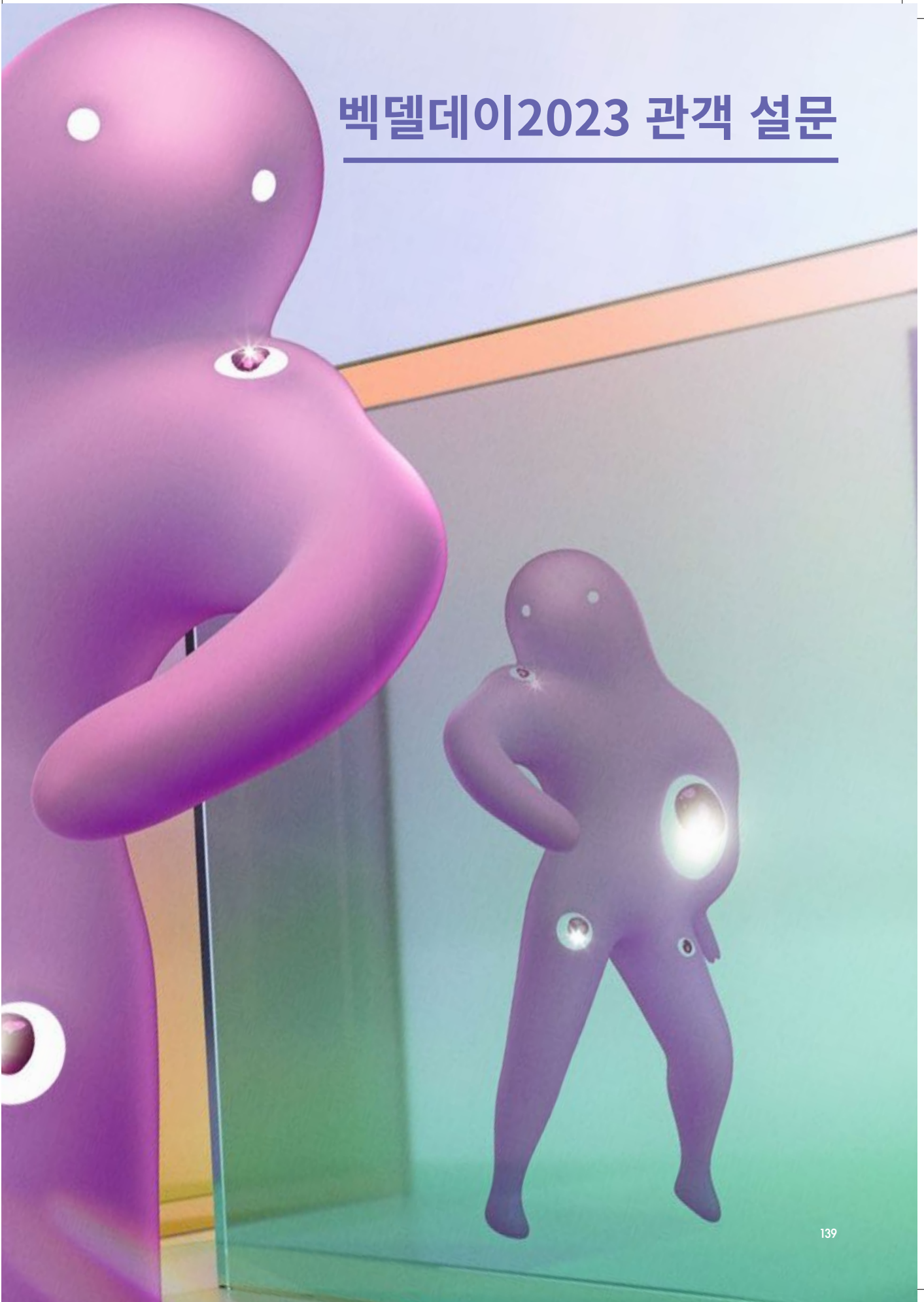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3) 포토부스

올해에는 현장을 방문한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백델데이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부스를 설치하였다. 관객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이 이루어졌고, 추후 SNS에 업로드되어 행사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포토부스	인화지(실물)
	
포토부스	인화지(디자인)

벡델데이2023 관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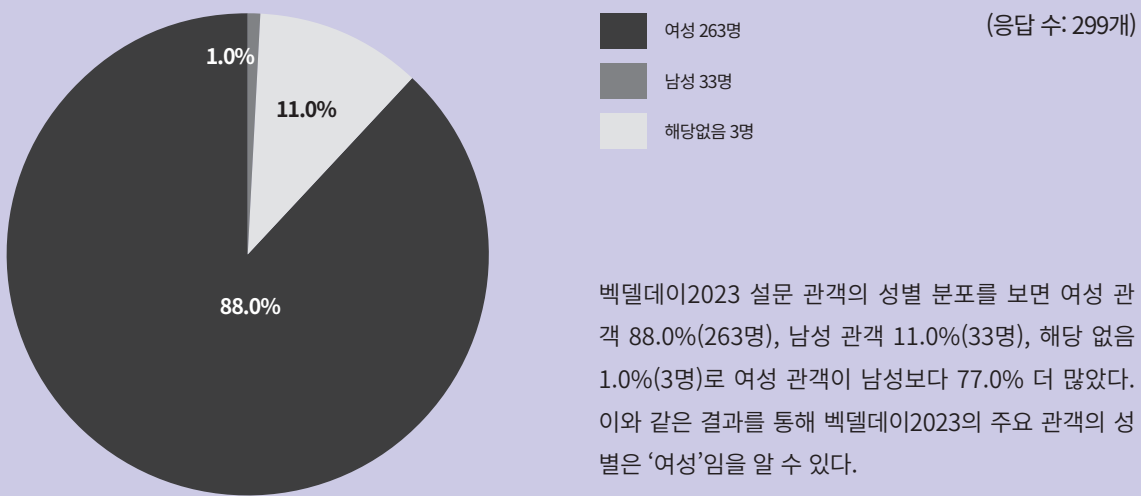


관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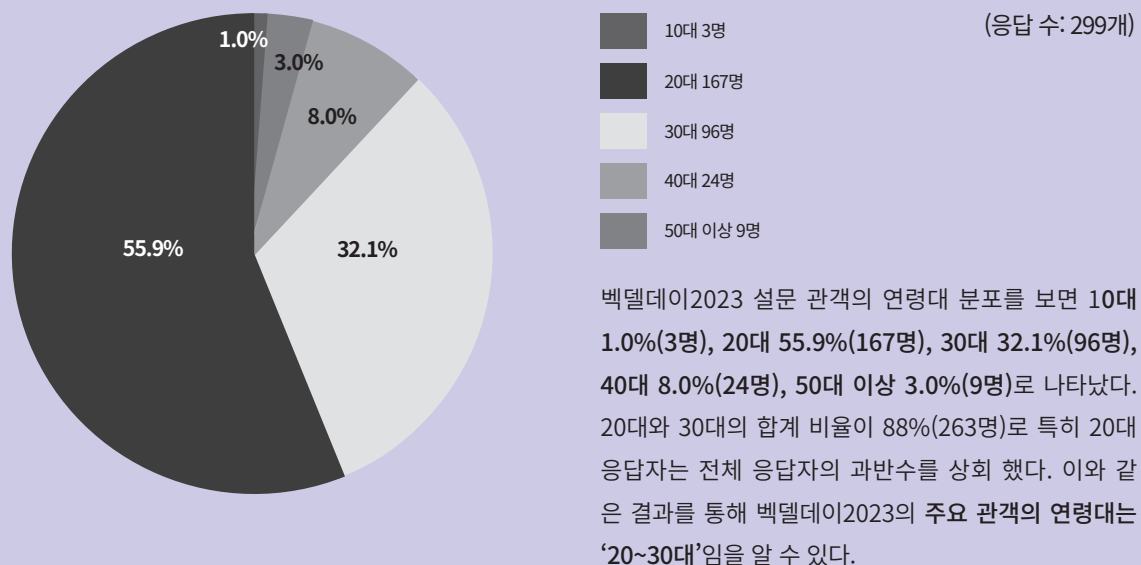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 (서울 마포구)에서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 ‘백델데이2023’ 현장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299명의 관객이 응답했다.

관객 기본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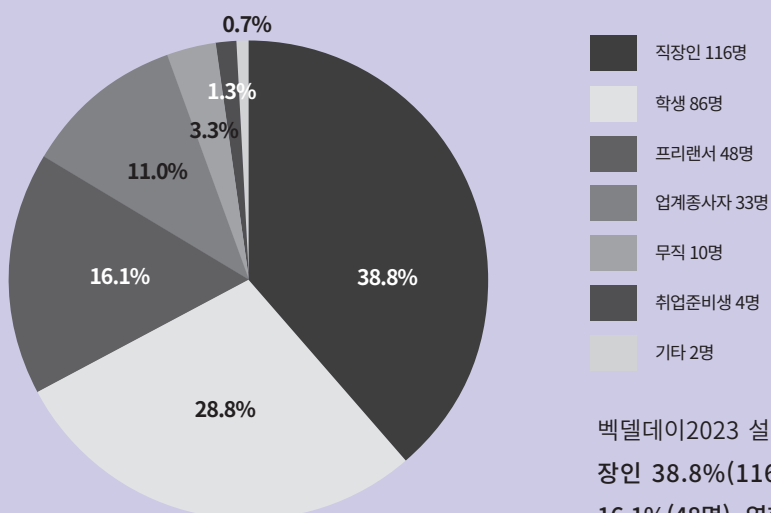
1. 관객 성별



2. 관객 연령대



3. 관객 직업



벡델데이2023 설문 응답 관객의 직업 분포를 보면 직장인 38.8%(116명), 학생 28.8%(86명), 프리랜서 16.1%(48명), 영화·영상 업계종사자 11.0%(33명), 무직 3.3%(10명), 취업준비생 1.3%(4명), 기타 0.7%(2명: 무응답 1명, 자영업자 1명)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벡델데이2023의 관객의 직업군은 ‘직장인과 학생’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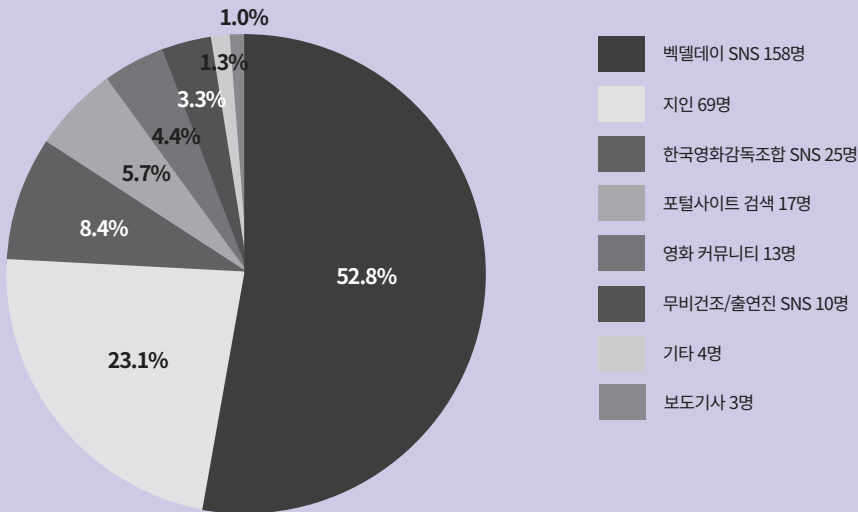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직장인	학생 (초·중·고/대학생/ 대학원생)	프리랜서	영상·영화 업계종사자	무직	취업준비생	기타
응답	116 (38.8%)	86 (28.8%)	48 (16.1%)	33 (11.0%)	10 (3.3%)	4 (1.3%)	2 (0.7%)

관객 설문

백델데이 관람 요인

4. 올해 백델데이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나요?



백델데이2023 설문 관객의 백델데이 정보 습득 경로를 보면 백델데이 SNS가 52.8%(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인 23.1%(69명), 한국영화감독조합 SNS 8.4%(25명), 포털사이트 검색 5.7%(17명), 영화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4.4%(13명), 무비건조 유튜브 및 출연진(게스트) SNS 3.3%(10명), 기타 1.3%(4명), 보도기사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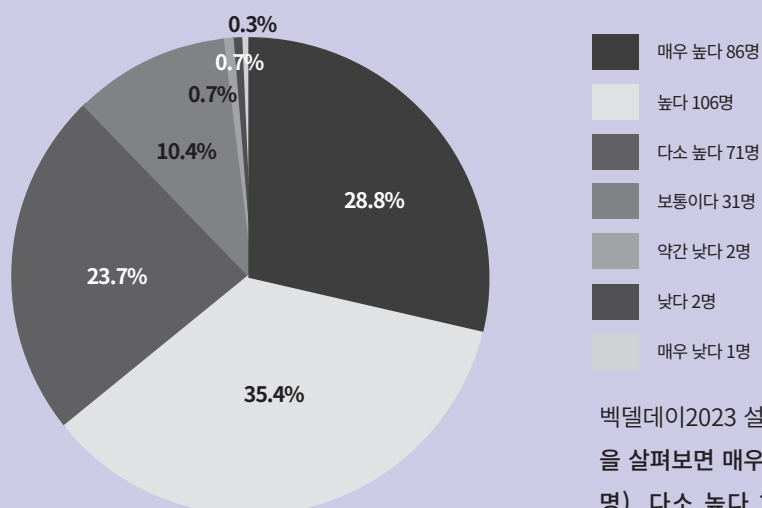
‘기타’ 응답으로는 백델데이2023 개최 장소인 인디스페이스 SNS(3명)와 전년도 백델데이 참여를 통한 인지(1명)가 있었다.

‘백델데이 SNS’를 통한 유입률이 58.2%로 절반을 상회하고 백델데이2022(32.7%)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올해 온라인 홍보가 전년도보다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백델데이 인스타그램 채널(@bechdelday)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백델데이 SNS	지인	한국영화 감독조합 SNS	포털 사이트 검색	영화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무비건조 유튜브 /출연진 SNS	기타	보도기사
응답	158 (52.8%)	69 (23.1%)	25 (8.4%)	17 (5.7%)	13 (4.4%)	10 (3.3%)	4 (1.3%)	3 (1.0%)

5. ‘양성평등’에 대한 귀하의 인식 수준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벡델데이2023 설문 관객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높다 28.8%(86명), 높다 35.4%(106명), 다소 높다 23.7%(71명), 보통이다 10.4%(31명), 약간 낮다 0.7%(2명), 낮다 0.7%(2명), 매우 낮다 0.3%(1명)로 양성평등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과 이해를 지닌 관객군은 87.9%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해(78.9%)보다 9%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인 관객들이 벡델데이2023에 참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매우 높다	높다	다소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낮다	매우 낮다
응답	86 (28.8%)	106 (35.4%)	71 (23.7%)	31 (10.4%)	2 (0.7%)	2 (0.7%)	1 (0.3%)

관객 설문

백델데이2023 현장 관객 만족도

6. 관람하신 영화/행사는 무엇인가요?

(응답 수: 299개, 중복응답 포함 544개)

No.	관람	실제 관객 수 (명)	응답 수 (개) ※ 중복포함	설문 참여율 (%)
1	9/1(금) 13:00 <외계+인 1부>	12	9	75%
2	9/1(금) 16:00 <드림팰리스>	36	29	81%
3	9/1(금) 19:00 <소울메이트> + GV	107	91	85%
4	9/2(토) 14:00 백델토크1: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	85	55	65%
5	9/2(토) 16:00 백델토크2: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87	61	70%
6	9/2(토) 19:00 <다음 소희>	68	50	74%
7	9/3(일) 11:00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70	65	93%
8	9/3(일) 14:00 <유령> + GV	107	76	71%
9	9/3(일) 17:30 <성적표의 김민영>	84	75	89%
10	9/3(일) 19:30 <정직한 후보2>	35	33	94%
합 계		691	544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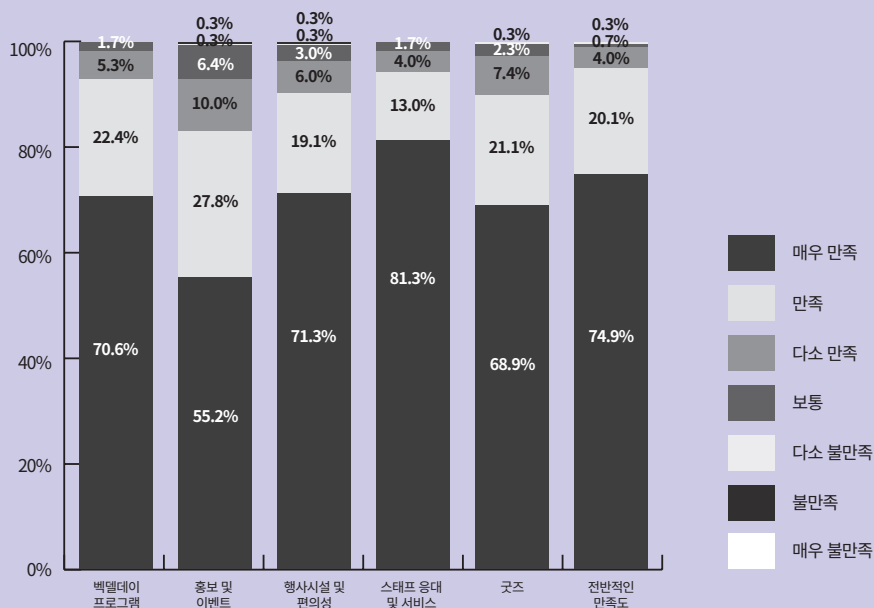
백델데이2023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 응답한 관객 299명 중, 2편 이상 복수 관람한 중복응답자는 총 123명(41.1%)으로 영화나 행사를 '2편' 관람한 관객이 63명(21.1%), '3편' 관람한 관객이 30명(10.0%), '4편 이상' 관람한 관객이 30명(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델데이2022의 중복응답자 비율(30.0%)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백델데이2023에 이들 이상 방문한 관객은 73명(24.4%)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전년도의 이들 이상 방문율(19.2%)보다 5.2% 상승한 수치다. 이와 같은 결과값을 통해 백델데이2023에 대한 관객들의 현장 참여도 및 영화/행사의 복수 관람률이 전년도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7. 백델데이2023 유형별 만족도 조사

1) 백델데이2023 유형별 만족도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만족도	① 백델데이 프로그램	② 홍보 및 이벤트	③ 행사시설 및 편의성	④ 스텝 응대 및 서비스	⑤ 굿즈	⑥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211 (70.6%)	165 (55.2%)	213 (71.3%)	243 (81.3%)	206 (68.9%)	224 (74.9%)
만족	67 (22.4%)	83 (27.8%)	57 (19.1%)	39 (13.0%)	63 (21.1%)	60 (20.1%)
다소 만족	16 (5.3%)	30 (10.0%)	18 (6.0%)	12 (4.0%)	22 (7.4%)	12 (4.0%)
보통	5 (1.7%)	19 (6.4%)	9 (3.0%)	5 (1.7%)	7 (2.3%)	2 (0.7%)
다소 불만족	0 (0.0%)	1 (0.3%)	1 (0.3%)	0 (0.0%)	1 (0.3%)	1 (0.3%)
불만족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0.3%)	0 (0.0%)	0 (0.0%)	0 (0.0%)
전체	299 (100.0%)	299 (100.0%)	299 (100.0%)	299 (100.0%)	299 (100.0%)	299 (100.0%)



관객 설문

2) 유형별 만족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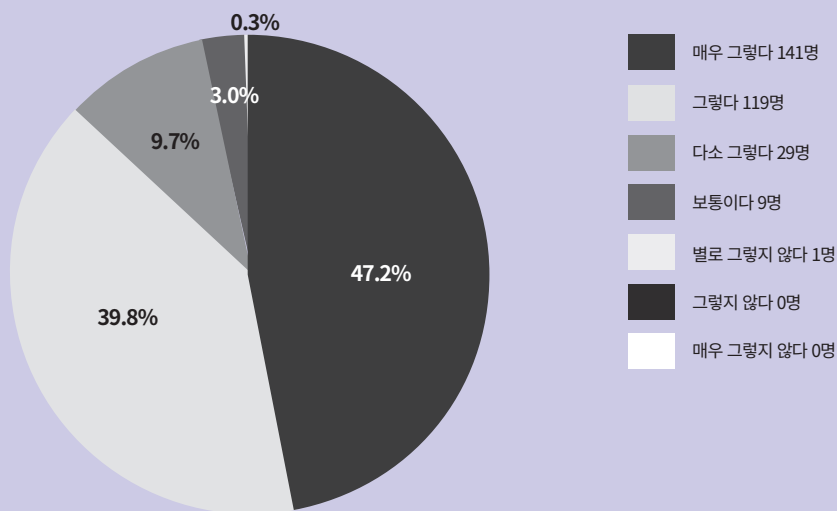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만족도	① 벡델데이 프로그램	② 홍보 및 이벤트	③ 행사시설 및 편의성	④ 스텝 응대 및 서비스	⑤ 굿즈	⑥ 전반적인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 기준	6.62	6.30	6.57	6.74	6.56	6.69
100점 환산 기준	93.6	88.4	92.8	95.7	92.6	94.8

벡델데이2023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형별 만족도는 100점 환산 기준 고득점순으로 스텝 응대 및 서비스 95.7 점, 전반적인 만족도 94.8점, 벡델데이 프로그램 93.6점, 행사시설 및 편의성 92.8점, 굿즈 92.6점, 홍보 및 이벤트 88.4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벡델데이2023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이 74.9%, “만족”이 20.1%, “다소 만족”이 4.0%, “보통” 이하는 1.0%에 불과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벅델데이2023이 귀하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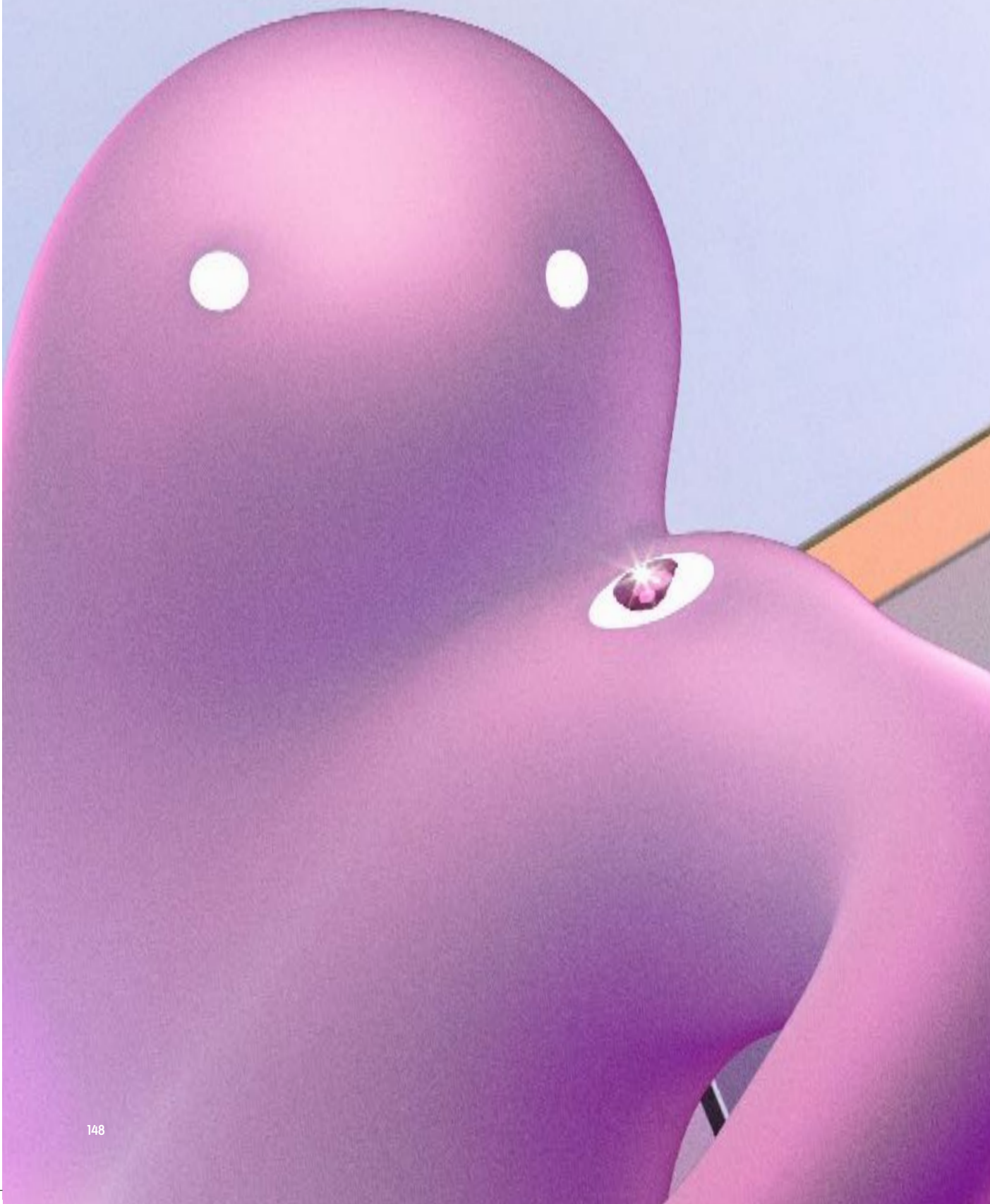
벅델데이2023 설문 고객의 96.7%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 하는 데 벅델데이2023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양성평등 이해 제고에 대한 고객 평균 만족도는 7점 만점(리커트 7점 척도 기준)에 6.30점이며, 100점 환산 기준 88.4점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를 통해 벅델데이2023가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 수: 299개,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141 (47.2%)	119 (39.8%)	29 (9.7%)	9 (3.0%)	1 (0.3%)	0 (0.0%)	0 (0.0%)

연계 행사



• 백델초이스 초이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행사인 2023 커뮤니티비프(Community BIFF, 2023.10.6.~10.9.)와의 협업으로 커비 컬렉션 - 백델 초이스 초이스를 진행하였다. 백델데이 2023 영화 부문 백델초이스 10 중 한편인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을 상영하며 백델데이의 의미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까지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출한 감독과 배우들의 GV를 함께 진행해 각 영화의 세부 내용을 관객과 나눴으며, 이를 통해 보다 성평등한 영화를 만들고 나누려는 창작자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백델데이는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영화제와 영화계 여러 행사와 협업해 성평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성적표의 김민영>

- 상영: 2023.10.8.(일) 11:00 롯데시네마 대영 3관
- 모더레이터: 이화정 백델데이2023 프로그래머
- 게스트: 이재은 감독, 임지선 감독, 김주아 배우, 윤아정 배우

추천 코멘트

올해도 찾아온 한국영화감독조합과의 협업 프로그램,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이기도 했던 이 영화의 감독 배우들과 함께 더 깊은 공감의 시간을 가져 보아요. (조원희 커뮤니티비프 예술총감독)



연계 행사

젠더온-이달의 젠더뷰

• 젠더온 - 이달의 젠더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지식 플랫폼인 젠더온에서 ‘백델데이’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일반 시민들이 ‘백델데이’를 잘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의 젠더뷰: 백델데이가 켜는 미래	젠더온 숏츠: 민규동 감독이 알려주는 ‘백델데이’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5길 15, 3층

전화번호 : 02-6080-4422

홈페이지 : www.dgk.or.kr

E-MAIL : dgk@dgk.or.kr

SNS :  @directorsguildofkorea

 @directorsguildofkorea

 @koreandirectors



SNS :  @bechdelday

 @bechdelday